NOV 17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 981 1982년 11월 16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November 16,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집인 : 김운영
인쇄인 : 박정서
광고국장 : 송광호

蘇공산당 서기장에

유리·안드로포프

만장일치선출, 15년간 KGB 총책

(모스크바-외신종합)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2일 긴급회의를 열고 당서기장에 정치국원이며 전비밀경찰(KGB) 총책이었던 유리·안드로포프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로써 브레즈네프 사망이후 안개에 쌓여있던 후계자 윤곽이 완전히 드러났으며 안드로포프와 함께 후계자물망에 올랐던 콘스탄틴·체르넨코는 오는 23일 열리는 최고회의에서 소련대통령에 선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8세인 안드로포프는 18년간 소련을 지배했던 브레즈네프당서기장 사망발표후 하루만에 새실력자로 부상했으며 12명의 중앙위원중의 한사람이다.

소련의 관영 타스통신은 이날 안드로포프가 당서기장에 선출된 후 국가보위에 충실할 것을 서약하고 소련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보전할것을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안드로포프 신임당서기장은 지난봄 정치국원으로 선정되면서 15년간 비밀경찰을 지휘했던 자리에서 사임했었다. 그는 KGB총책으로서 전국의 언론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또한 일체의 출판물과 문화관계를 관장했었다.

브레즈네프서기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라 그 후임자로는 소련 권력기구상 유리·안드로포프 전KGB를 비롯 오랫동안 브레즈네프의 측근자였던 콘스탄틴·체르넨코, 드미트리·우스티노프국방상등이 물망에 올랐었다.

한편 이번 소련의 최고권력자에 오른 안드로포프서기장은 지난 1월25일 소련의 최고이론가였던 미하일·수슬로프(79)가 사망했을 때부터 브레즈네프의 후계자로 지목되어왔다.

안드로포프는 15년간 KGB를 지휘하면서 소련권력기구에서 가장 날카롭고 세련된 인물로 평가되어 왔으며 영어도 구사하는등 당외교정책가로도 명성을 높여왔다.

그는 1956년 헝가리대사직에 있으면서 헝가리자유봉기를 탱크로 진압한 장본인중의 하나이다.

◆소련당서기장 안드로포프

군사적우위만이 평화를 보전할 수 있다는 안드로포프의 첫성명에 대하여 국방상 우스티노프는 즉각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우스티노프국방상의 지지표명은 새로운 실력자에 대한 군부측의 충성을 보여주고 있다.

안드로포프의 무력적인 평화천명은 그의 15년 비밀경찰지휘의 경력등으로 비추어 앞으로 소련의 대외정책이 강경해지지않을까 서방측은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김일성부자 암살기도

(도쿄13일=연합)북한의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 김정일을 암살하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13일 통일신문이 보도했다.

재일교포들이 펴내는 이 신문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소식통을 인용, 10월 중순경 12명의 북한 공안부원들이 김일성부자 암살을 획책했다가 즉각 체포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이 암살기도 사건은 전체 북한권력계급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고 특히 김정일파인 오진우가 이끄는 국가보위부일파에 크게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황새떼 출현

대전부근서, 40년 만

(대전13일=연합)거의 40년만에 황새떼가 한국에서 목격됐다.

13일 서울의 조류학자들은 대전부근의 한 농가에서 농부에 의해 목격된 1미터키의 날개가 검은 11마리의 새가 황새떼임을 확인했다.

황새는 지난 72년과 74년 각 한마리씩 발견된 것 이외에 떼를 지어 발견된 것은 1940년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제5회 교민사격선수권대회가 13일 Toronto Sportsmen's Association 사격장에서 40여명의 교민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눈보라등 일기불순으로 전년에 비해 기록이 저조했다.(관계기사 2면에)

피로얼룩진 토론토도심

시크교도 또 총질, 경찰등 4명부상

일요일인 14일 토론토 중심가인 영·스트릿과 블루어·스트릿에서 시크(Sikh)교도들의 시위도중 총격이 일어나 경찰 1명을 포함한 4명이 부상하고 수백명의 시민들이 피신처를 찾아 동분서주하는등 조용하던 토론토의 휴일이 피로 얼룩졌다.

이날 하오3시50분경 블루어·스트릿·이스트 2번지의 인도총영사관 앞에서 시위중이던 2백여명의 시크교도중에서 누군가가 권총을 무차별 발사, 때마침 산타·클로즈 퍼레이드를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블루어와 영·서브웨이로 몰리는 수백 인파를 혼란과 공포의 와중으로 몰아넣었다.

총에 맞은 4명 가운데는 메트로 경찰 소수민족대(ethnic squad)의 크리스·페르난데스(30)형사도 포함됐다. 페르난데스형사는 무작정 총을 쏘아대던 한 데모대원의 바로 옆에 서 있었으며 범인으로부터 총을 뺏는 순간 발사된 총알에 목뒤를 맞았으나 목숨은 건졌다.

함께 부상한 시크교도 바힐·싱(35)등 3명도 목숨은 건졌다.

메트로 경찰은 시크사원의 직원인 하민더·싱(35)을 불법무기(권총)소지죄로, 지안·싱(39)을 시위및 질서파괴혐의로, 쿤달·싱(38)을 불법무기(칼)소지죄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사건당시 몇명이 몇발의 총격을 가했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최소한 1명이 살인기도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파로 나뉜 메트로의 시크교도들은 고국인 인도정부가 시크교도들을 탄압하는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시위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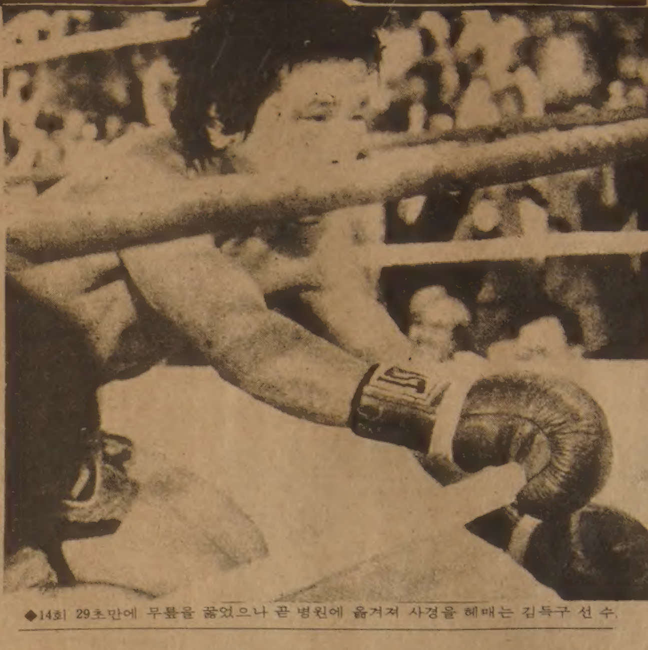
메트로 시크교도들의 파벌싸움은 지난 3월28일 오스굿·홀 법정에서 변호사 오스카·폰세카(51)와 싱·판누(31)씨가 피살된뒤 본격화되었다.

당시 사건의 범인 싱·삼라(35)는 아직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시크교란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기 전부터 자리잡은 500년 역사를 가진 힌두교와 모슬렘교를 혼합한 별도의 종교이다.

주로 펀잡지방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영국이 물러나면서 인도 정부하에 소속시킨 이후 독립국가를 이룩하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다. 수년전 팔레스타인해방기구를 모방한 달·칼사파의 과격집단이 인도군대와 무력전까지 벌이자 이를 견제하는 노년층 온건파 아칼리·달파와의 세력싸움이 세계각지의 시크교사회에서 치열해졌다.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다이야몬드·순금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4 Bloor St. W.


◆14회 29초만에 무릎을 꿇었으나 곧 병원에 옮겨져 사경을 헤매는 김득구 선수.

소생 가망 없을듯

WBA 챔피언전 중 다운

김득구 중태

(라스베가스)13일밤 이곳의 시저스·팔레스에서 열린 WBA 라이트급 챔피온타이틀전에서 챔피온 맨시니의 강타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한국 프로복서 김득구 선수는 15일 새벽 현재 인공호흡기등 구명기에 의해 마지막 숨을 쉬고 있으나 회복될 희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수의 뇌수술을 담당한 토니·헤메그렌 신경외과 의사는 2시간30분에 걸친 뇌수술에서 100CC가량의 핏덩어리를 긁어냈으나 환자의 상태는 밤새에 더욱 악화돼 인공호흡기가 추가됐고 의식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헤메그렌의사는 14일 "뇌세포의 상처가 매우 크며,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고 모든 신경조직의 작동도 중단상태"라면서 이와같은 환자들은 대부분 사망한다"고 덧붙였다.

인공호흡기등을 제거, 김선수의 편안한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헤메그렌의사는 그같은 결론을 내리려면 몇일간에 걸쳐 부수적 시험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헤메그렌의사에 의하면 챔피온 맨시니의 마지막 펀치가 오른쪽 두개골의 혈관을 터뜨린것이 김선수 다운의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득구 선수는 13회까지 녹다운 한번 없이 잘 버텨왔으나 14회 19초만에 터진 맨시니의 오른쪽강타가 김의 두부에 적중,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김선수가 쓰러져 꼼짝않자 링닥터 도날드·로메오씨가 환호하는 관중들을 헤치고 링위에 올라 곧바로 병원후송을 결정했다. 맨시니의 승리는 카운트·텐을 끝내지 않았으므로 네바다주의 룰(rule)에 의해 TKO로 결정됐다.

한편 김선수가 쓰러진후 가족들과 함께 14일 김선수 회복기원예배에 참가한 레이·맨시니선수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 직업에서는 언제나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노리고 팔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면서 다시한번 자기의 장래를 생각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경기를 주선한 프로모터 봅·아럼씨는 프로복싱경기를 당분간 중단하고 선수들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WBA에 요구했다.

(관계기사 2면에)

사 고

사진대회 시상식 4일

아마추어 사진촬영대회 입선작 전시회가 오는 4일(토)부터 11일까지 웨이사이드 화랑(Wayside Gallery: 9185 Yonge St. 하이웨이 7 북쪽)에서 열립니다. 이 전시에는 사진협회가 지난 여름 캐나다 록키산맥에서 찍은 작품도 함께 전시되며 작품에 따라 판매도 합니다.

지난 10월2일의 사진촬영대회때 촬영한 작품의 시상식은 4일 하오 2시부터 시작됩니다. 사진대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물론, 일반 교민제위의 많은 참관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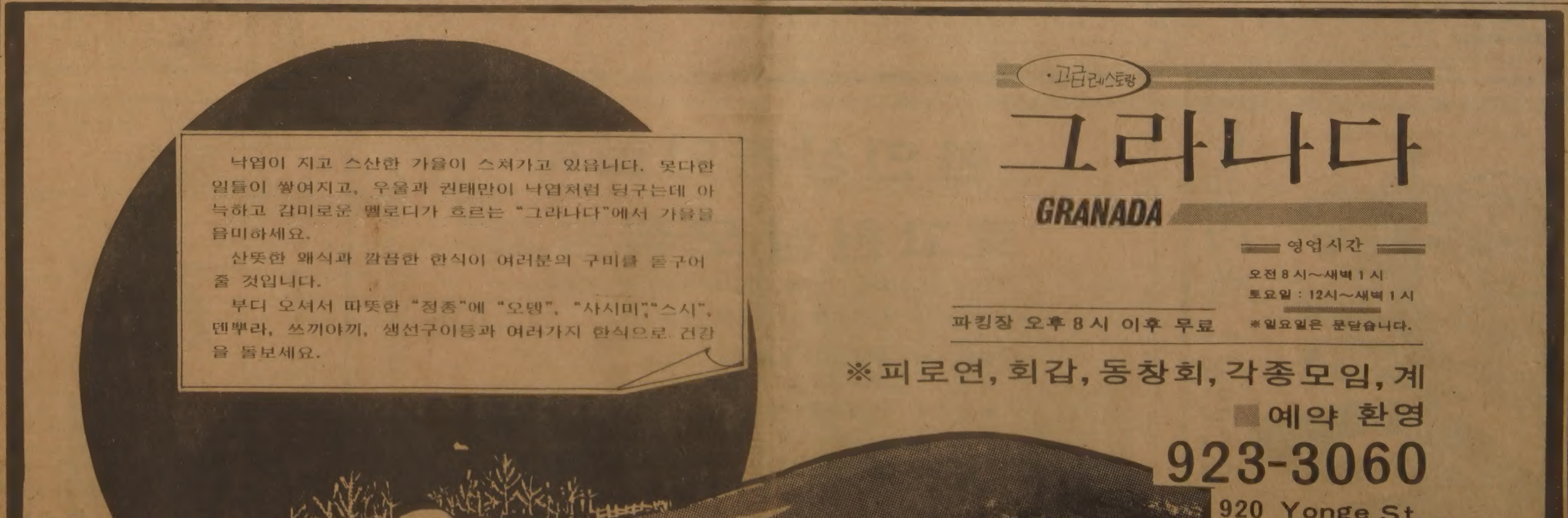
한인사진협회
토론토 한국일보사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 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토론토아파트1/10 아랍투자가에게

60명이 $5억투자,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은 없다"

60여명의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 5억달러를 투자, 메트로·토론토의 임대아파트와 타운하우스 10,931채(Unit)를 구입함으로써 2개 캐나다회사들에게 총 2억3천만달러의 이윤을 주었다고 로버트·엘지 온타리오 소비·상무관계장관이 11일 발표했다.

엘지장관은 11일 메트로·토론토 역사상 가장 대규모이며 또한 가장 말썽많았던 이번 임대아파트 매매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면서 "이로 인해서 임대료가 지나치게 인상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거래로 토론토의 아파트 10채중 1채가 사우디인 소유가 된다.

온타리오의 임대료 인상심의법에 따르면 새로운 주인은 빌딩구매대금의 일부를 메우기 위해 임대료를 크게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 토론토 전반에 걸쳐 임대료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는 본다.

사우디인들이 고용한 빌딩관리회사인 킬더킨·인베스트투자회사(Kilderkin Investment Ltd.)측은 11일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우디언들에게 팔린 아파트및 타운하우스중 토론토·스타가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다.

○에인스리·코트: 56채(1617 빅토리아·파·에비뉴)

○베이뷰·스퀘어: 301채(10 11 러딩톤·드라이브, 노스욕)

○브레톤·프레이스(44 제스·에비뉴)와 브레톤 타우어(33 로스힐·에비뉴) 도합 629채

○찰톤·코트: 120채(55및 56 에크레스톤·드라이브)

○체스·프레이스·이스트와 웨스트: 481채(221및 265 바리올·스트릿)

○크레이톤·코트: 125채(1및 3 베긴·코트와 4 렌노크·스트릿, 스카보로)

○델·프라도: 156채(20 샬마·불로바드)

○돈·리지·타우어스: 65채(70 파크우스·빌리지·드라이브, 노스욕)

○포리스·그로브: 114채(55및 80 몬트크레어·에비뉴)

○그리나디어·스퀘어: 664채(40 하이파·에비뉴와 77 패벡·에비뉴)

○햄프톤·하우스: 438채(322 에그링톤·에비뉴및 로빙손·에비뉴의 타운하우스)

○호라이존·하우스: 226채(7및 9 로노크·로드, 노스·욕)

○험브·리지: 190채(3328및 3330 웨스톤·로드, 노스·욕)

○아이브데일·매이소넷스: 60개 타운하우스(2029-2055 빅토리아·파·에비뉴)

○파·프레이스: 1,971채(55및 66 요크마운트·로드, 66및 111 퍼시픽 에비뉴, 35및 95 하이·파·에비뉴)

○프라자 100: 412채(100 웰스리·스트릿)

○로스버리·스퀘어: 1,056채(145 마리·에비뉴, 노스·욕에 있는 빌딩포함)

○로스데일·이스트: 550채(50및 70 캠브리치·에비뉴)

○더·타운: 185채(77 센크레어·에비뉴·이스트)

○유니버시티·시티: 1,480채(75 포·윈스·드라이브빌딩과 470 센티넬·로드, 노스·욕에 위치한 아파트)

○우드뷰·코트: 59채(20 린드·크리센트, 노스·욕)

○카스텔라나: 72채

○크린트우드·코트: 64채

○호리존·빌리지: 160채

○메이소네트·아파트먼스: 84채

○파크웨이·포리스트: 1,854채

○스미트·프레이스: 249채

세계최대우주로켓 소련, 발사계획

(모스크바-외신)모스크바의 권위소식통이 최근 밝힌 바에 의하면 소련은 83년에 세계최대의 출력을 갖는 로켓발사 실험을 실시하고, 85년에는 10~12명을 태운 무게 약 4백톤의 「우주정거장」을 궤도에 올리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G」로 불리우는 이 로켓은 길이 90M 이상, 추진력 약 5천톤으로 136톤 이상의 우주선등을 궤도로 올리는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까지 쏘아올린 로켓중 최대의 것은 미국이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는데 사용한 새턴V형으로, 추진력이 약 3천4백톤, 약 90톤 무게의 것을 궤도에 올릴 수 있었다.

약삭빠른 政治人

브레즈네프후임 안드로포프

(모스크바)10일 사망한 레오니드·브레즈네프의 후임으로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된 유리·안드로포프는 소련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약삭빠른 지도자의 한사람으로 알려진 전 KGB(비밀경찰)국장 출신이다.

안드로포프는 지난 5월 중앙위원회 서기국국원으로 승진, 브레즈네프의 측근겸 소련공산당 정치국의 일원이었던 콘스탄틴·체르넨코와 똑같은 공산당서기장 후임서열에 올랐었다.

그는 서기국국원으로 승진된지 이틀후 15년간 역임했던 소련비밀경찰 KGB의 국장직을 사임했었다.

10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서기국국원으로 승진된 다음 안드로포프는 소련국내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그의 권력을 강화했으며 정책결정기관인 소련공산당 정치국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더 많은 발언권을 갖게 되었다.

◆「이론상의 진보파」-소련의 새얼굴은 의외로 빨리 유리·안드로포프로 결정되었다. 사진은 79년 브레즈네프와 악수하는 안드로포프(왼편).

서방엔 이론상 진보파로 알려져 영어아는 극소수의 지도급 인물

소련지도급중 영어를 할 수있는 극소수중 하나로 서구문명, 특히 미국에 매료당해온 것으로 알려진 안드로포프는 서방국가들간에 「이론상의 진보파」로 알려져있으나 해전행정부내의 소련전문가들은 그에 대한 평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안드로포프는 북부 코카서스의 나구츠카야에서 철도종업원의 가정에 태어나 16세때 전신수로 일하기 시작한후 영화영사기사와 볼가강의 사공등의 생활을 거쳤다.

사격왕에 최용근

단체상은 한국일보팀

◆금년도 교민 사격챔피온으로 뽑힌 최용근(좌)씨가 우승 트로피를 받고 있다.

금년도 교민사회의 사격왕으로 버라어티·스토어를 경영하는 최용근씨가 선정되었다.

최씨는 지난 13일 Toronto Sportsmen's Association에서 열린 캐나다사격협회 창설기념 제5회 한인사격선수권대회에서 챔피온이 되었다.

80년도에도 챔피온이었던 최씨는 이날 표적 날려맞추기 종목인 Trap사격에서 산탄 50발중 43발을 명중시켰다. 이 기록은 지난해 참피온 원종필씨가 49발을 명중시킨 것에 비해 저조했다.

4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눈보라가 치는등 나쁜 일기조건으로 대체로 성적이 저조했다.

또한 3명 1조로 된 단체전에는 처녀출전한 토론토 한국일보사팀이 우승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캐나다 쥬니어사격 국가대표선수인 교포학생 손훈(16세)군이 나와 출전선수들에게 사격지도를 해주었다. 캐나다 쥬니어 국가대표팀의 4명중 1명인 손군은 에머리고교(Emery Collegiate) 학생으로 사격경력 4년만에 대표선수의 영광을 획득했다.

경력별로 나누어진 각조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팔호안은 50발 사격중 명중점수.

◆AA조
1등-백경락(42발)
2등-원종필(38발)
3등-박 완(36발)

◆A조
1등-소영훈(36발)
2등-손병헌(34발)
3등-김의열(33발)

◆B조
1등-김진헌(31발)
2등-이정만(29발)
3등-김갑수(26발)

◆C조
1등-김영철(29발)
2등-이인섭(28발)
3등-안태응(25발)

맨시니 KO율 80%

김득구, "승부는 50 : 50이다"

(라스베가스-본사 이홍렬특파원)13일밤 링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죽음을 기다리는 김득구 선수는 12일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다.

경기전 기자회견에서 김은 맨시니가 굉장히 강한 선수이나 승률은 50:50이라면서 이번 경기가 "매우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 통산전적 25승1패의 맨시니는 20KO승을 자랑하며 그중 3회 이내에 KO시킨 것만도 15차례이며 특히 1회에 KO시킨 시합만도 8차례나 된다.

라이트급 동양챔피온이며 WBA랭킹 1위인 김선수는 지난 2일 미국에 도착, 훈련을 쌓아왔다.

김선수는 12일 저녁 라스베가스에서 맨시니선수와 자리를 같이한 마지막 공동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은 맨시니를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는가.

●굉장히 강한 상대를 만났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까지 온것은 괜히 놀러온 것은 아니다. 승부는 50:50이다. 맨시니가 이긴다면 나도 이길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한다.

○맨시니는 이번 경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매우 기억에 남는 경기가 될것이라고 믿고있다. 상대를 결코 얕보지 않는다.

○몇라운드까지 갈것이라고 예상하는가.

●경기는 15라운드까지로 예정돼있다.

○이번 경기에서 작전을 세운게 있다면.

●아웃복싱에는 아웃복싱으로 인파이팅에는 인파이팅으로 싸울 예정이다.

다음은 회견이 끝난뒤 본사기자와 맨시니의 단독인터뷰 내용이다.

○연습은 얼마나 했는가.

●스파링을 1백라운드 이상 했다.

○현재 컨디션은.

●최상이다.

○김득구에 대해 아는바가 있다면.

●양손을 모두 구사하는 선수로 알고있다. 이런 상대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겨울스포츠의 꽃 스키를 즐깁시다 ⑤

박경택(온타리오 스키협회회장)

2. 스키복장

미식축구, 아이스하키등은 유니폼이나 프로테트(Protect) 장비가 요란하다. 그런가하면 수영같이 알몸이 되다시피 팬티만 입고 행하는 스포츠도 있다. 스키복장은 다소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다. 스키복은 기온과 용도에 따라 구비해야 한다.

1) 모자

일반스키어는 털실모자를 준비한다. 카나다는 추운 곳이라 목에서부터 입과 코까지 가릴수 있는 것이 좋다.

간혹 진목도리를 늘어뜨리고 스킹하는 초보자도 있는데 모양도 나쁘고 위험하다.

달리면서 동작을 배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방한과 간편한 것이 좋다.

2) 장갑

스키그로브는 반드시 스키용(가죽제품)이어야 한다. 운동이 끝나면 털실 장갑도 무방하다.

평상시 사용하는 가죽장갑은 운동을 장시 하여도 찢어지거나 손에 염색돼서 동상에 걸릴 염려도 있다.

스키전문 장갑·안경등 필요

"백설에는 어느색깔도 잘어울려"

그리고 스킹중에 털장갑은 금물이다. 손에 열이 나므로 넘어지면 눈이 녹아서 장갑 사이에 얼어 버린다.

이런 경우는 즉시 다른 장갑으로 갈아야 한다.

3) 양말

스키양말은 보온이 좋고 흡습이 잘 되는것을 두서너켤레 준비하고 보통양말도 하나둘은 필요할 때가 있다.

동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자기가 사용하는 스키붓츠에 맞추어 준비하며 너무 두꺼운 것은 감각이 둔하다. 동작이 편리하도록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4) 스키바지

경제형편에 맞추어 실리적으로 복장을 준비한다. 나일론계 제품은 아푸터웨어(After Ware)이지 스킹에 본복장은 아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간소한 스키복이 생산되고 있다.

스키 판타롱은 에라스틱(Elastic) 스트렛취(Stretch) 팬티를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모양과 색깔은 각자 취향대로 선택한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것을 착용해도 좋다. 단 넘어져도 눈이 녹아서 스며들지 않는 것을 입는것이 운동에 지장이 없다.

5)스키쉐터와 셔츠

스키장 만큼 희고 시원한 연습장도 없다. 백설의 스테이지(Stage)에서는 어떤 색갈의 옷도 멋지게 어울린다.

면이나 목셔츠(목이 긴 것)를 쉐터밑에 받쳐 입는 것이 방풍과 방한에 효과가 있다. 쉐터는 어떤 모양이든지 운동하는데 간편하면 좋다.

6)스키잠바

최근에는 스키바지가 위로 배를 감쌀 정도이므로 스키잠바는 짧은 것도 좋고 유행에 따라 긴것도 괜찮다.

기온에 따라 잠바의 부피를 맞추는 것이 적합하다.

캐나다에서는 스키잠바가 스킹 이외에도 많이 필요하다. 비와 진눈깨비가 올 때는 아주 방수가 잘되는 것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7)고글과 선그라스 (Goggle·Sunglass)

흰눈이 사방에 꽉차있는 곳에서는 눈이 부시기 때문에 활동이 불편하다.

스킹할때는 찬바람이 눈에 계속 닿기 때문에 눈물이 나서 앞을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안용 색안경이 꼭 필요하다. 눈이 내리거나 풍설이 심할때는 고글이 있어야 스킹을 계속할 수 있다. 고글 하나만 준비해도 무난하리라 생각된다. 이 고글은 스키장에서의 필수품전중 하나이다.

문화인의 반려자. 한국일보·533-2361

밍크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밍크 ●폭스 ●세블 ●라쿤
록키모피 MR. 정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09>

金聖鍾 작

29분의 1 ⑭

형사 다녀간뒤 朴文子는 불안에 떨며…

형사가 사라지자 박문자는 문을 거칠게 닫았다. 철문이 문틀에 꽝하고 부딪치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큰일 났다!』

하나의 분명한 소리가 가슴을 쳤다.

그녀는 한동안 문에 기대서있었다.

『큰일 났다! 어떻게 알았지?』

형사가 찾아오다니 무서운일이었다. 그렇게 완벽을 기했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큰일 났다! 어떻게 알았지?』

무릎이 덜덜 떨려왔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사가 찾아오게 된 경위를 알수가 없었다. 형사는 귀신보다 무섭구나. 그렇지않고서야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단 말인가?

서둘러 아파트로 이사온것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살인현장에서 눌러앉아 산다는것이 싫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완전범죄를 만들기위한 이유가 더 컸다.

그래서 가정부까지 갈아치우지않았던가. 그전 가정부 옥자에게는 이사한곳을 알려주지 않았다. 완전히 인연을 끊기위해서였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그애한테서 편지가 왔다. 어떻게 이곳 주소를 알았을까.

그녀는 거실에 앉아 옥자의 편지를 뜯어보았다. 양면괘지에 볼펜으로 또박또박 쓴 편지였다. 옥자는 철민이를 몹시 귀여워했었다. 그래서 잊지못하고 편지를 보낸 모양이었다. 내용은 대개 이러했다.

너의 집에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바뀌었더구나. 난 네가 이사간줄도 모르고 있었단다. 네가 보고 싶어 죽겠다. 너하고 오래오래 함께 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돼 슬프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된다더냐. 너의 집에서 나올때 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단다. 지금의 집은 너의 집에 비하면 훨씬 못해. 아이들이 다섯이나 돼서 나는 잠시도 쉴 틈이 없고 주인들은 성질이 아주 사납단다. 그러나 어쩌니. 내 신세가 이런데 꾹 참고 살아야지. 넌 화하고 영리하니까 반드시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엄마아빠 말 잘듣고 건강히 잘 있어. 너는 몸이 약하니까 잘먹고 잘 자야해. 누나가 있으면 너한테 맛있는거 해줄텐데. 전화번호 알려줄테니까 틈나면 전화해. 너의 집 새 전화번호하고 주소는 알고 있단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알길이 없어서 할수 없이 철민이 아빠 회사로 전화를 걸었단다. 아빠는 친절히 알려주셨어. 너의아빠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네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더 못쓰겠다. 몸 건강히 잘 있어.

편지끝에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망할 기집애.』

그녀는 섬이 나서 중얼거렸다. 회사에까지 전화를 걸어 알아내다니, 망할 계집애.

그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혹시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렸다.

신호가 떨어지면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의 떠드는소리도 뒤엉켜 들려왔다.

『실례지만 그 댁에 가정부로 일하고있는 이옥자양 좀 바꿔주세요.』

『누구시죠?』

여인이 거칠게 물었다.

『네, 친척 아줌마 되는 사람인데요.』

『밤 늦게 무슨 전화가 이렇게…. 잠깐 기다리세요.』

朴 男 그림

○중공에서 진짜 우황청심환 홍삼·녹용이 들어왔읍니다.
남녀노소 보약먹을 시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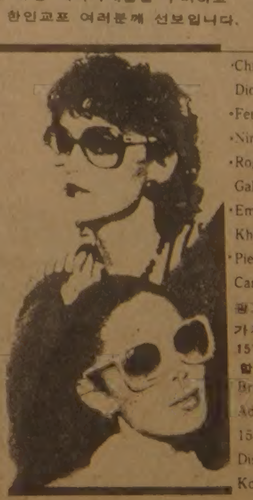
536-6854
하르빈한약상사
643 A- BLOOR ST. WEST

한인상공인협회 로고현상모집공고

제1차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협회로고를 아래와 같이 선정코저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협회이름 : 한인상공인협회 (K.C.C.C.)
The Korean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2. 현상금액 : 1등 $500과 부상
2등 : 부상 3등 : 부상
※참고사항 : Ontario Chamber of Commerce Logo를 참고하시기 바람.
3. 응모마감일 : 1982년12월10일
4. 보 낼 곳 : Toronto Eaton Center P.O. Box 330
Toronto, M5B 2H1

한인상공인협회
The Korean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 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테니스巨星 보그 불안한 再起

空白1년… 前哨戰서 매켄로에 零敗

내년 全美오픈에 정식복귀 코너즈-랜들등 4強戰 주목

북구의 테니스왕자 비욘·보그는 과연 정상에 컴백할수 있을까. 스웨덴출신의 26세 보그는 내년부터 다시 시작될 본격적인 그의 테니스선수생활에 앞서 전초전으로 가진 호주대회서 라이벌 존·매켄로에게 54분만에 6-1, 6-4로 무릎을 꿇어 지난날의 위력을 되찾는데 실패했었다. 매켄로는 81년 윔블던대회서 그의 6연패를 좌절시킨 장본인. 또 보그는 1년간에 걸친 공백중 매켄로와 한번도 대결해보지 못한 유일한 적수로 이날의 결승전이 관심을 모았었다.

그러나 보그는 지난7일 또다른 호주대회에서 매켄로를 3-6, 6-4, 7-5, 6-2로 다시 꺾어 15만달러의 상금과 함께 컴백의 가능성을 보였다.

1년에 그랑프리대회 10개이상 참가의무를 명령한 남자프로테니스협회에 반발, 그랑프리대회에 단두번(몬테카를로, 세이끄)출전한 보그의 현재 랭킹은 세계 2백9위.

그는 83년 1월 전미프로실내테니스대회부터 테니스계에 정식복귀한다. 『지난 3년간 윔블던, 미국오픈, 프랑스오픈등 3개대회의 챔피언은 희망하는 대회에 예선전에 참가하지 않고 직접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고 프로협회가 양보했다. 프로협회는 각 그랑프리대회에 유명선수를 골고루 출전시켜 대회의 수준을 유지하기위해 연간 10회이상 출전하도록 규정하고 이들에게만 본선에 직접 올라갈수 있는 자격을 주어왔다.

17세부터 격렬한 테니스무대서 지내온 보그는 휴식을 위해 81년부터 대회참가를 줄여 1년에 7, 8개 그랑프리대회와 빅이벤트대회 출전만을 고집했다. 이 때문에 그는 금년 윔블던대회를 예선부터 뛰어야하는 입장이 되어 대회를 보이코트하고 완고한 테니스조직과 싸워왔다.

『테니스는 구기가 아니다, 격투기다』라고 말한 지미·코너즈의 지적처럼 세계프로테니스는 거금의 상금과 명성을 는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이미 17세때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조국 스웨덴을 떠나 몬테카를로에서 거주해온 그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 결국 조직에 대항, 일단 승리를 거둔 이제 보그에 대한 관심사는 그의 성적이다. 보그의 등장으로 남자테니스는 코너즈-매켄로-랜들 트리오시대에서 4강시대로 돌아섰다. 이 3강중 코너즈와 랜들은 보그에게 눌리곤 했다.

금년 윔블던과 미국오픈서 우승한 코너즈는 보그와 세차례 시범경기서 두번 이기고 한번 졌다. 빅타이틀은 없으나 승률이 가장 높은 이반·랜들(체코)역시 보그에게 약한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역시 테니스선수였던 부인 마리아나와의 이혼설, 부인의 발병(암)설등 심심찮게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테니스를 계속해오긴 했지만 그는 연습부족과 대회출전 공백으로 톱컨디션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권위있는 윔블던을 5연패(76~80년)할수 있었던 그의 천재성이 이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것인가. 지금의 남자 테니스계는 그의 전성시절의 판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를 닮은 마츠·빌란데르(18)가 지난 프랑스오픈서 그의 최연소챔피언 기록을 경신하며 우승했으나 아직은 한동안 보그의 적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백1년만에 다시 테니스계 복귀를 꾀하는 스타선수 비욘·보그.

소련학생 여객기점거

망명차 터키에 강제착륙

(안카라발-외신)터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7일 동독계 소련학생 3명이 소련국영 아에로프로트 항공 소속 국내선 여객기를 점거, 터키의 시놉 공군기지에 강제착륙시킨 후 투항, 정치망명을 요청했다.

피납기는 동항공의 안토노프 24형기로 승객 42명을 태우고 우크라이나공화국의 오뎃사로부터 흑해연안도시 노보로시스크로 향하는 길이었다.

동 여객기가 이륙직후, 피스톨과 단도로 무장한 학생 3명이 조종실로 몰려와 기내에 폭탄을 장치했다고 위협, 기장에게 터키행을 요구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승무원과 수명의 승객이 범인들과 격투를 벌였으나 실패, 승무원 1명과 승객 2명이 범인의 칼에 경상을 입었다.

결혼축하

신랑: 이은형군
신부: 이선자양
때: 1982년 11월20일(토) 하오1시
곳: 쎄인·폴성당(83 Power St.)
주례: 최규식 신부

유인형수상집 『에드몬톤의 불꽃』을 읽고

어 윤 순(뱅쿠버 여류작가)

▲소개말: 이 글은 뱅쿠버 거주 여류소설가 어윤순여사가 에드몬톤의 수필가이며 캐나다한국문협회원 유인형씨가 최근 발행한 수상집〈에드몬톤의 불꽃〉독후감을 수상형식으로 엮은 것이다.(제공: 뱅쿠버지사)

10월의 어느날 저녁무렵 Mr. K와 L이 큰 일이 난듯 황급히 나를 손짓해 불렀다. 부로드웨이의 큰길로 나가 그들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어찌된 일인가. U.B.C.쪽 하늘이 불타고 있지 않는가!

넋을 잃고 말았다. 노을이 불타고 있는 것이었다. 아름다운 황혼, 포도주빛으로 물든 석양,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광경이었다. 집과 건물은 검고, 하늘은 피빛보다 더 붉게 타고 있는 모습-.

「불나는 것 같군요.」「소방차를 불러야 할 지경이군요.」

우리가 그런 이야길 하고 있으니 가까이로 오시던 할머니, 「아녀, 불타는 게 아녀, 노을이여」 하신다.

노을은 노을인데 불타는 노을, 고등학교시절 보라빛으로 물드는 포도원 저편의 노을을 보고 시를 써 본 일은 있었지만 그때의 싯귀도 떠오르지 않고, 새로운 싯귀도 생각나지 않는다.

「한줄 읊어봐요.」

누군가가 말했지만 그냥 멍청히 서있을뿐 감정을 표현해낼 수 없었다.

「한국에서 보던 노을은 주홍빛이나 보라빛이었는데, 이곳의 노을은 어쩌면 저렇게 빨개요?」

빨간 빛이 번져 길도 사람들의 얼굴도 취한듯 붉게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멍청히 그렇게 중얼거렸을 뿐 이었다.

그날밤도 다음날도 내 눈앞엔 노을이 장엄하게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단 한줄의 감상문도 쓸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할까 안타까와한 것도 잠시뿐 이내 노을의 충격도 잊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건조하고 빛깔없는 일상으로 돌아가 감정에 메마른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배와 같이 익고 거리의 가로수잎마저 단풍이 들어 붉고 노랗게 변해 길위에 노랗게 깔린 것을 보고도 「가을이구나. 어쩌면 세월이 이렇게 빠를까?」했을뿐, 호수위에 붉은 단풍이 쏟아져 가을의 소란한 축제가 굉장하다는 호프의 산정에도 못가본채 마음속의 메마른 낙엽이나 주우며 사는 생활, 비오롱 위에 흐르는 에디트·삐아쁘의 서글픈 샹송이 가슴을 가르는 듯하다.

봄과 여름엔 손발이 붓고, 몸이 진공상태에 둥둥 뜨는 듯한 심한 탈진상태의 병명도 모르는 병을 앓았다. 까닭 없이 피롭고 허전하고, 마음은 조급해지다 느슨하게 늘어지는 이상한 감각상태, 그러다 짧막한 여름휴가에 섬에 다녀온 후로 거짓말처럼 그 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기력증이랄까, 식곤증이랄까, 먹는 병에 빠지고 말았다. 그저 무작정 먹어대는 것이다. 모든 욕망은 사라지고, 마지막 하나 원시적인 식욕이 남은듯 종일 먹고, 밤중에도 먹고, 눈뜨면 먹고, 소화흡수하느라 몸과 정신은 혼미해지고, 자연히 속이 빌 때보다 비만해지니 게으름은 더 기승을 부려 하루에 단 한줄의 글, 단 한자의 편지조차 쓰지 못하고, 책도 읽지 못하고, 집에가면 쓰다만 원고지가 있는 방에 가까이 가는 것이 겁나서 공연히 앞에서 밍기적거리고, 주섬 주섬 먹고, 기어코 12시는 넘어야 자던 버릇대로 이유없이 잘 시간을 지연시키고, 아침에는 꼭 지각을 하는 스스로도 혐오스런 생활.

그 생활의 고비에서 나를 맞이해준 것은 유인형씨의 수상집〈에드몬톤의 불꽃〉이었다.

남자분의 글이라, 조금은 건조하겠지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섬세한 감각과 날카로운 감정이 번득이는 좋은 글이었다. 이민생활을 하는 우리의 갈등과 아픔이 공감하며 함께 담겨있고, 우리의 어려움, 외로움이 같은 빛깔로 물들여져 있다.

고달픈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분은 고달픔을 푸념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희망과 보람이 가득한 생활로 윤색시키고 있다.

복잡한 도시생활을 하면서도 자연을 사랑하고, 이름없는 풀잎, 바람에게 애정을 보내고 있다.

그분도 모든 바쁜 사람들이 그러듯 식사도중에도, 직장에서의 쉬는 시간에, 심지어는 화장실에서까지도 글을 썼을 것이다.

쓴다는 그 자세, 마음속에 응어리진 고통과 기쁨을 글로 표현해 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다.

몇달동안 몇줄의 글도 못쓰며 전전긍긍하던 자신을 돌아볼때 열성적으로 생활에 임하는 그분에게 머리가 숙어진다.

무엇부터 써야될지 몰라서 글을 쓰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붓가는대로 쓰면 되는데, 그게 여간 힘든게 아니다. 「수필은 생각하는 것을 아무 제재 없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쓰는 글」이라는 본질에 대해 재삼 음미해볼 수 있는 글을 대하며 나자신부터도 나태의 늪에서 빠져나와 단 몇줄의 글이라도 써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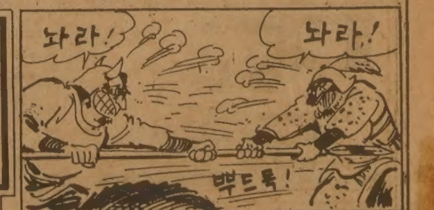
글을 써서 한권의 책으로 엮은 저자에게 그 정성과 노력에 감탄을 보내며, 앞으로 더욱 분투하여 더욱 알찬 생활인과 집필가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이웃들에게도 유인형씨의 글을 횃불삼아 이민생활의 고달픔과 즐거움을 한편의 글로 남길 수 있도록 빌어본다.

글을 통하여 마음에 응어리진 고통도 풀고, 잡다한 일상의 번민이나 아픔도 풀고, 미움도 풀고, 그러고나면 다시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활력이 생긴다. 이 신선한 아픔과 기쁨을 나누어 갖기 위하여 우리 모두 독자가 되고, 필자가 되는 욕심을 가져본다.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각종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훼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968-1543 · (R)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東国人의 밤

저무는 또 한해를 보내며 보다 깊은 우애와 번영을 기약할 "동국인의 밤"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읍니다. 부디 부부 동반 하시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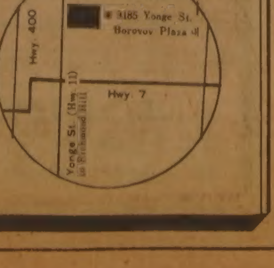
일 시: 11월27일(토) 오후7시
장 소: INN ON THE PARK TORONTO (Oak Room)
1100 EGLINTON AVE. EAST
DON MILLS, ONT. M3C 1H8
(LESLIE & EGLINTON)
회 비: COUPLE당 $40
연락처: 844-2922(MR.정)
421-5613(MR.오)
481-9373(MR.김)

재카나다동국대학교
동문회장 정관풍(鄭觀豐)

동양화전시회안내

금년봄 이주한 운파 이정복씨가 관직중 틈틈히 닦아온 필치를 담은 작품으로 동양화 전시회를 갖기로 했읍니다. 우리 고장의 향취를 화폭에서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처럼 오셔서 따뜻한 후의로써 격려하여 주시면 우리가 협찬하는데 더욱 그 의의가 깊어질까 합니다.

일 시: 1982.11.26(금요일)~12.4(매일 오전10시~오후5시)
장 소: Wayside Gallery
9185 Yonge St. (Borovoy Plaza)
☎: 886-1667



협찬: 토론토한인회
토론토한인회관이전건립위원회
서울대학농대동창회
경기고동학교동창회

한국일보

우리고장 생활의 健全한 新聞

브레즈네프 死亡

10일下午2시30분(한국시간)…75歲로 18년 權座 종지부

당분간 集團指導체제 難免

蘇 공산당中央委 후계자問題엔 言及없어

◇최근 모습 18년간 크렘린의 절대 권력을 누려왔던 브레즈네프의 최근 모습.

【모스크바=綜合】소련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가 10일하오2시30분(한국시간) 갑자기 사망했다고 11일하오5시(한국시간)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가 소련관영매스컴보도를 통해 공식발표했다.

이날 소련관영 타스통신, 소련 라디오와 T.V、모스크바방송은 동시에 러시아語와 영어로 브레즈네프의 사망을 발표했는데 그의 사망원인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발표문은 『브레즈네프가 위대한 레닌주의의 진정한 계승자였고 평화와 공산주의의 열렬한 챔피언이었다』고 찬양했다. 발표문은 또한 『브레즈네프는 소련인민과 전체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게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련방송과 TV는 브레즈네프의사망을 발표한직후 베토벤의교향곡을 방송하기 시작했다.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그러나 브레즈네프가 맡고있던 공산당서기장과 소련간부회의의장의 두직책을 누가계승할지에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서방소식통들은 브레즈네프의 사망으로생긴 권력의공백이 조만간 前KGB의장 유리·V·안드로포프, 오랜 브레즈네프 측근 콘스탄틴·체르넨코, 국방상 드미트리·우스티노프, 외상 안드레이·A·그로미코등으로 구성되는 집단지도체제에의해 메워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한 소련수상 니콜라이·A·티호노프, 모스크바공산당당수 빅토르·V·그리신등도 중요역할을 수행할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75세인 브레즈네프는 지난64년 당시 수상이던 니키타·흐루시초프가 실각한후 지금까지 18년간 소련의 최고權座를 지켜왔다.

1천5백 2천명 派兵희망

레바논、한국에

"美제의… 크리스머스前 실현 駐屯기간은 2年 안넘기게"

【워싱턴=李文馥특파원】레바논정부의 한국에대한 파병요청은 미국의 제의에의한것이며 이것은 지난10월19일 아민·제마엘 레바논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레이건대통령과등 일련의 미고위관리와만난 자리에서 미같은 제의를 받게된것이라고 워싱턴의 한 레바논소식통이 밝혔다.

레바논의 아민·제마엘정부의 대변단체인 레바논홍보조사센터의 홍보책임자인 가산·하십씨는 이날 제마엘대통령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등 외국군의 원활한 철수를위해 현재 다국적평화군의 일원으로 참여하고있는 1천2백명의 미해병증파를 미측에 요청했었으며 미측은 국내문제등을고려, 증파에 난점이있음을들어 한국을비롯, 6개국에대한 파병요청을할것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십씨는 현재 레바논정부의희망은 한국이 약1천5백~2천명의 병력을 파견해주는것이며 오는 크리스머스前까지는 파병이 되길바란다고말하고 11월부터 시작된 레바논과이스라엘의철수회담등 현 레바논내의사정으로보아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주둔기간은 2년이 넘지않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레바논정부는 현재 미국·프랑스·이탈리아등 3개국 3천8백명의 평화유지군과 유엔결의에따라 파견된 7천명의 유엔군을 포함, 약2만명의 평화군이 이스라엘, 시리아, PLO등의 철수와 레바논의 안정회복시까지 주둔해주길 바라고있으며 따라서 나머지 1만여명이 새로 요청된 6개국에서 파견되길바라고있다.

이와관련, 워싱턴의 한소식통은 다국적군의 참여폭이화대되는 시점에서 미해병의증부증파도 실현될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파병국속에 한국을 포함시킨데 대해 하십씨는 미국과의 특별한 유대관계가지속되고있으며 한국이 이스라엘 아랍제국과 모두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때문인것으로 풀이하고 한국측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같은 의사가 고위관리를 통해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미국무성 이글버거부장관, 홀드리지東亞시아담당차관보, 램버드슨 한국과장등이최근서울을다녀갔거나 체류중인것으로 되었다.

한편 하십씨는 한국측의반응이 불확실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영국은 포클랜드주둔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형편이며 그밖의 나라에서도 지금현재 참여의 반응을 보인곳은 없다고 말했다.

泰·스페인·콜럼비아 派兵도 要請하기로

【베이루트26=外信綜合】레바논은 타이·스페인·콜롬비아등3개국에 그들의 군대를 베이루트의 다국적평화유지군에 파견해주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평화유지군과 연관이있는 한소식통이9일밝혔다.

스웨덴、派兵에難色

【베이루트26=外信】 스웨덴은 레바논 다국적평화유지군에 참여할수 없을것이라고 스웨·스트롬호룸 레바논주재 스웨덴대사가10일밝혔다고레바논외무성소식통이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스트롬호름대사가 엘리에·살렘 레바논외상과의 회담에서 스웨덴정부는 「다른 분야」에의 참여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면서 스웨덴 의무부대가 南레바논에서 유엔평화유지군과 함께 활동하고있는 사실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새指導體、平和기여했으면"

外務部、논평

外務部의 한관계자는 11일 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의 사망에대해 『새로운 소련의 지도체제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평화에 적극적인기여를 하게될것을 바란다』고 논평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브레즈네프 소련 共産黨서기장의 사망이 확인됐다』면서 『소련은 당분간 集團지도체제를 유지하다가 키릴렌코前 정치국원, 안드로포프 前KGB책임자 그리신 모스크바 市黨위원장등 3명중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무원 情勢변화 對處를 越冬期 서민생활 保護도"

全대통령、閣議주재

全斗煥대통령은 11일『최근 세계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날이 갈수록 불안정한 상황이 증대돼 가고 있으며, 레바논에서 우리에게 派兵요청을 해올정도로 국제정세가 급박해지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1차적으로 主人의식을 갖고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 능동적으로 急變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각부처의경우 외국과의 모든관계는 앞으로 반드시 외무부와 사전 협조를 거쳐 계획을 수립, 수행토록 할것』이라고 內閣에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특히 『年末을 앞두고 각부처별로 금년에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철저히 점검, 당초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완결되도록하고 새해사업계획도 미리 절약과 實效性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고 당부 하고 『특히 새해 사업계획의 경우 정부사업을 내년초에 무期집행, 경기부양을 선도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것』이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모든 공무원들은 제5공화국의 경제목표인 안정적성장이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越冬期국민생활안정대책, 특히 영세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각지방행정단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것▲年末을 계기로 3大불조心理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정부각부처간에 정보교환등 긴밀한 협조하에 모든 시책을 수립, 시행할것▲고층건물 화재예방등 大型화재사고가 나지않도록 예방책을 마련, 시행할 것등을 지시했다.

"附價稅폐지 용의는… 勤所稅 實額공제를"

財務委、稅法改正案 질의

국회財務委는 11일하오 회의를열고 정부가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등6개稅法안에대한정책질의를벌였다.

이날 李慈憲 金鍾仁(이상 民正) 金承穆 李載根(이상 民韓) 李洙鍾의원(國民) 등은▲紙上配當稅制의 폐지용의▲附價稅의 폐지나 대폭수정 여부▲국채발행계획의 취소여부▲근로소득세의 實額공제의 도입용의등을 물었다.

이날 李洙鍾의원은『정부가 국채인수를위한 2억달러의 外債도입을 구상하고 있다는데 그眞僞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60%에서 50%로 내리고 최저세율을 6%로 정하는등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稅率조정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李慈憲의원은 『租稅개혁을 통한 소득재분배정책을 포기하지않았다면 이번 稅制개편은 어디에 그 의지가 담겨있는가』고 물었고 金承穆의원은『GNP 對比 19.2%나 되는 조세부담률이 과중한것 아니냐』 金鍾仁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대폭인하를 골자로한는 세제개정안에 보는바와같이 稅收확보가 일반세제의 운영을 통해서도 이루어질수 있다면 목적세인 교육세를 일반재정에서 歲入조정하는것이 정상이라고 보지않는가』고 물었다.

★獨立기념관誠金 名單 하루쉽니다

社会漫評

누구나 「끝」은 있구나…

地平線

인도에는 禁酒를 정책으로 내걸고있는 政黨이 있다。國父인 간디부터 飮酒는 매춘이나 도둑질보다 더 해로운것이라고 말했고 禁酒法을 만들기까지 했다。이런 인도에서 최근 술값이 늘어가고 있다는소식이다。禁酒黨인 자나타黨의 스와미당수는 최근 인도엘리트들이 西洋것에 먼저 빠져들어가 앞날이 걱정된다면서 외국의술에 인도 청년들이 찌들어 간다고 개탄까지 했다는 것이다。▼유엔調査보고서는 아시아전체에서 술의 소비량이 60년보다 5배나 늘었다고밝혔다。세계평균 증가율의 4배나 된다。홍콩에서는 으레 프랑스産 코냑이 없으면 파티가 되지않는다하여 어느자리건 코냑이 적어도 한병은 끼어놓게 마련이라는것。우리나라에서도 브랜디(코냑)를 엽숨이나 소다水까지 넣어 칵테일로 해서 탁주마시듯 마시는 모습을 종종본다。코냑은 그렇게 마시는것이아닌데도—。▼코냑의 그 맛이 좋아 코냑을찾는 愛酒家도있겠지만 더러는 外産이니까、유명하니까 프랑스産 코냑이나 비싼 輸入洋酒를 찾는 사람도 있을것이다。外製選好性이 체질화 된 사람들이라할까。이처럼 外製라면 정신을 못차리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흔하다。外産酒만이 아니라 外製選好癖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찌들게 한다는것을 알아야할것같다。▼거리에 나가보면 여성들의 의상과 핸드백에서 어쩌면 그리도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냄새가 많이 풍겨나는지 모르겠다。천의 무늬와 핸드백의 고리에서「셀리느」「구치」「크리스창·디오르」「랑뱅」등 프랑스고급점포의「상표」가 너무나 흔하게 찾아진다。파리나 로마、런던의 거리에서보다 서울이나 부산거리에서 유럽의「오트·쿠튀르」의상표를 더많이 볼수있을 지경이다。▼그런 값비싼 고급상표의 가방이나 옷가운데는「진짜」도 있지만 상당량이「가짜」란점에 또 큰문제가 있다。서울市警은 최근 프랑스 特許협회의 고발에따라 유명상표를 도용하거나 불법사용한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섰다。어떤업체는 상표도형 10개를 2천원에 사와 숙녀 구두와 가방에 붙여 엄청난 값으로 팔았다는것이다。이들은 1차로「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다 입건되었다。▼이런일은 또 부정상품거래로서도 처벌되어야 마땅하다。최근 大韓商議가 실시한 소비자조사에따르면 1년간 不良商品구매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主婦가 62.4%나 된다。이번에 立件된 外國상표도용자들은「가짜」를 만든데다「外製」로 위장하여 건전한 소비풍조를 찌들게했다는데서 그허물이 더크다 하겠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CHRISTIE)
NTO, ONT.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불루어안경

◆ Rodenstock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Green Shieleld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Contack Lens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안과의사 사무실은 본상점과 한 부록 떨어져 있음)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 ~8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 (R)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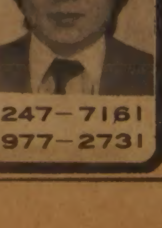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크렘린宮의 「18년皇帝」

1906년12월11일 우크라이나 鐵工노동자의 2男3女 막내로 태어나

◇붉은지도자의 忙中閑 73년 訪美 길에오르기 며칠전 손녀 갈리나와함께 모스크바의 한공원에 나들이나선 브레즈네프내외。

◇헝가리 訪問때 79년 1월 헝가리를 방문한 브레즈네프가 모스크바올림픽의 상징인 미샤곰인형을 안고있다。브레즈네프는 이인형을 어린이들에게 선물했다。

◇美人훔쳐보는 共産黨서기장 73년6월 미국을 방문한 브레즈네프 소련서기장은 한 파티석상에서 여배우 질·세인트·존孃의 뒤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革命기념일 사열식에서 1980년 레닌묘에서 혁명기념 퍼레이드에 참석해 사열을 받으며 손을흔드는 브레즈네프, 뒤에는 비밀경호원。

社說

브레즈네프後의 蘇聯
—對中共和解등 政策變化 注目된다

크렘린의 주인의 자리가 18년만에 비었다. 「스탈린 비판」의 [illegible] 드라머가 일단락된뒤 흐루시초프의 뒤자리를 이었던 브레즈네프는 그에앞서는 두 독재자와는 판이한 자리를지키며 18년만에 떠났다.

스탈린의 시대가 피의 숙청과 신격화된 개인숭배의 시대였다면, 스탈린을 깎아내린 흐루시초프는 독재자의 강대한 권력의 공백을 능란한 쇼맨십으로 메웠다고 할수있는 전후 소련정치사의 한페이지를 남겼었다. 65년 소련공산당 지도부의 집단 쿠데타로 흐루시초프가 실각했을 때만해도 브레즈네프는 그다지 세상의 주목을 끌지못한 직업당료였다.

말하자면 브레즈네프는 스탈린의개인숭배도, 흐루시초프의 쇼맨십도 아닌 소련집단 지도체제의 「간판」으로서 예상치도 못했던 18년동안 자리를 지켜온셈이다.

12월에 76회 생일을 맞을 참이었던 브레즈네프는 그동안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서 사실상 공무수행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알려진지 오래였다. 그동안의 심상치않았던 움직임도 이제 와서 보자면 크렘린의 이러한 속사정과 분명히 관련됐었음이 또한번 확인됐다고 하겠다.

당 정치국의 원로인 수슬로프가 지난 1월 죽은뒤 심상치않은 움직임이 여러모로 드러났었다. 비밀경찰의 제2인자였던 브레즈네프의 사위가 의문의 죽음을했고, 브레즈네프와 동갑인 키릴렌코가 당정치국에서 밀려났다.

아마도 그렘린의 지도부안에서 브레즈네프가 사라진 다음의지도체제를 둘러싼 각축전은 올들어 이미 상당히 구체화됐던것이 확실하다. 유력한 후계자의 하나로 꼽혔던 키릴렌코가 탈락한 지금 남아있는 후보자로는 서너명이 꼽히고 있다.

비밀경찰 책임자였던 안드로포프와 브레즈네프의 오른팔이었던 체르넨코, 그리고 모스크바지구 당책임자인 그리쉰등이다.

이들중 누가 브레즈네프의 뒷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세계는 지금 크렘린 담장안에서 진행중인 권력투쟁의 마지막 라운드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그는 스탈린비판으로 시작된 인구 2억6천만이넘는 거대한 관료통치체제의 위기를넘긴 브레즈네프의 집단지도체제의 「다음세대」를 끌고 가야할것이다. 무엇보다도 브레즈네프는 아마도 2차대전후 최악으로 생각되고있는 경제문제를 이 「다음세대」에 남겨놓고있다.

소련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전후 가장 낮은것으로 알려져있고, 동유럽 공산권은 76년에 5.7%였던게 80년에는 1.2%로 굴러 떨어졌다. 폴란드의 난장판은 2차 오일·쇼크가 소련의 앞마당에 몰고온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수있다.

소련은 이들 위성국을 파산으로부터 건지기위해 80년의 경우 2백억달러나되는 원조를 퍼부어야했다. 그런데도 지난연말현재 동유럽 코메콘각국이 서방측에 지고있는 빚은 6백20억달러에 이르고있다.

게다가 소련은 한해 국민총생산의 12~14%의 막대한 돈을 군사비로 쓰고있다. 농사의 흉작이 연이은데다 생산성의 느린 성장이 겹쳐 폴란드病은 이제 사실상 소련의 병이라고 할수있을 정도라는 비관적인 평가도있다.

그것은 브레즈네프로 대표되는 크렘린 지도부의 실책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관료통치체제의 근원적 위기라고 할수있다.

브레즈네프이후의 세대가 이런위기를 어떻게 받아 넘길것인지 아직은두고볼수밖에 없다. 이미 北京에서 진행중인 중공과의 화해시도는 새로운 지도체제가 구상하고있는 변화의 표현일수도 있다.

미국의 레이건행정부에 대해 강력한 「대결」을 선언한 최근의 움직임이 권력의 공백기를 메우려는 제스처인지, 또는 새로운 지도부의 앞길을 암시하는 것인지 두고볼일이다.

우리로서는 특히 平壤과의 관계에 주목할 일이다. 새로운 지도부의 윤곽이 어떻게 형성될지 아직은 분명치 않지만, 그러나 이 엄청난 공포의 균형시대에 극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소련이 안고있는 안팎으로부터 부담이 그것을제약하고있다고할수있다.

文化財를 앗기는 羞恥

요즘 문화재관계 화제가 심심치 않게 신문과 방송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재관계 기사를 보도하는 빈도가 높은것은 문화재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도 되거니와 다른 한편으로는 비문화적인 사연들이 많이 얽히는 불법내지는 탈법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다는 얘기도된다.

가장 가까운 문화재관계 보도내용들은 일정시 대구에거주하던 모 일본인문화재수집가가 사망후 일본어느박물관에 기증한 우리나라 문화재의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나다는 것을 비롯하여 역시 일본에 있으면서 6·25전후의 우리 혼란기를 틈타 주로 도자기를 수집했던 「아다까」의 수장품이 일본의 박물관에 기증되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사연들이다.

그런가 하면 최근 일본의 시중백화점에 우리 조상들의 무덤을지키던 문인석상이 자그마치 일화5백만엔의고가로 더미로 팔려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놀랍거니와 얼마전에는 고미술상협회장이 보물급의 문화재를 일본으로 밀반출 하려했다가 구속이되어 일반에 충격을 주는 불상사도 있었다.

또 대구에서는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직후 떠나간 한일인이 수장했던 문화재를 살던 집에 몰래 묻어 두었다가 교포를 내세워 근 40년이 지난 요즘 그것을 되파서 빼돌리려다 적발되는 소동도 있었다.

이렇듯 우리 문화재에 상관이 있는 새로운 소식이나 사연이 있다면 그거개는 일본과 어떤 형태로든 상관이있고 또 그 상관은 우리를 언짢게 하기가 일쑤이다.

문화재를 두고 언짢아야할 가장 큰 대목은 일제치하에서나 6·25와 같은 미증유의 난리 통, 아니면 경제성장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이르른 오늘조차 시종 여일하게 그것들이 불법으로 일본에 흘러 들어가고만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사단은 국내적으로는 문화재보호행정, 특히 해외로의 반출루트에 크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도 언제까지나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음에 원인이 있겠다. 또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그렇게도 장구한 시일에 걸쳐서 다량으로 수탈 또는 불법반출을 당하면서 아직껏 정신을차려, 아끼고 가꾸기는 커녕 눈앞의 이익과 쉽게 타협하는 정신적 풍토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오늘날 문화재보호의 이념은 한나라의 문화재는 제나라에서 간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유네스코의 결의에서 찾게된다. 그뿐아니라 일본은 한일간의 국교를 새로 트면서 민간이 소유하는 우리문화재의 반환을 적극 권장할것을 다짐해놓은바 있다. 한데도 아직 일본정부의 권장으로 돌아왔다는 우리 문화재는 한점도 없는채 일본민간소유 우리나라문화재의 국·공유화현상만 보아온터다.

우리는 새삼 우리문화재에 대한 외국의 작태에 대해서 비분강개 하거나 지탄하는 일에 앞서서 앞으로는 또다시 지금까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 문화재에대한 일반의 각성과 관계당국의 적절하고 효능있는 문화재행정의 실을 촉구하지 않을수 없다.

記者의 눈

名과 實

레바논의 派兵요청을 받아 들여야할것인가, 아니면 거부해야 할것인가. 정부는 『신중』을 강조하면서 『검토중이다』고 했다.

파급효과의 진동이 나라안팎에미치는 派兵은 重大國事. 名과 實이 삼투해야한다.

레바논派兵문제를 놓고 우선 비교, 검토해보아야 할일은 64년의越南派兵. 朴정권이래의 최초의 국외파병이라고 들먹여졌던 越南派兵은 贊·反의 여론을 수렴끝에 결단이 내려졌었다. 이 당시의 명분은 맹방인 미국을 주축으로한 反共연합전선에의 참여이며 實利는경제적진출과 국방력의 강화였다.

지금은 越南이공산화, 평가를 달리하는 견해도 있겠으나 다수는 越南派兵이 성공적이었다고 결론짓고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그러나 軌跡을 달리한다』고 했다.

레바논派兵여부의 결정에는 名과 實을 신중히 재어보아야한다. 명분은 좁게보아서는 레바논, 크게보아서는 세계의 火藥庫인 中東사태의 평화적해결에 한몫 거든다는것이고, 실리는 레바논의 戰後복구사업에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해볼만한것이 64년과 82년의 시대적상황의 변화와, 레바논과 越南사태의 차이다.

韓·美간의 전통적동맹관계는 변함이 없다. 또한 레바논사태나 월남사태가 미국이 주도하고있다는데는 차이점이 없다.

레이건大統領의 중동평화 시나리오는 1차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시리아, 팔레스타인등 外國軍및 게릴라를 철수시켜 內亂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고, 2차로 이스라엘점령의 西岸지방과 가자지구에팔레스타인자치권을 인정, 요르단과聯邦정부를 형성하도록한다는것이다. 이대신 아랍권및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生存權을 인정하게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있다.

미국이 「레바논의 요청」형식을 빌어 요구하고 있는 한국군의 레바논派兵은 레이건의 중동평화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한국安保의 버팀대가 되고 있는 미국에 대해 互惠의 원칙에서 협력하는 것은 마다고만 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主權국가인 우리도 國益을 따져 보아야한다. 우선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소리없이 결실을 맺어오고 있는 우리의 유엔外交에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비단 非同盟圈에대한 영향만을 의미하는것이아니다. 레바논을 비롯한 中東지역은 현지 국가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利害관계가 엇갈려 왔다. 레바논만해도 판도가 회교, 기독교 세력으로 대별되고 같은 회교, 기독교들도 각파별로 나뉘어 파벌의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다. 다행히 현시점에서는 레바논의 각파벌과 회교권 국가의 온건파나 강경파가 다같이 아민·제마엘 레바논대통령의 국가재건계획에 동조하고있다. 단순히 치안을 담당하는 국제평화유지군은현재로는 超派的인환영을 받고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특히 이스라엘, 시리아, 팔레스타인등 外國軍의 철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레바논의 派兵에 큰 리스크는 없을것으로 본다.

그러나 각파벌간의 유혈로 점철된 레바논의 잠정평화는 언제깨질지모르는위험을 안고있다. 분규가재연되는경우 회교권의 강·온양측에 다같이 우호관계를 설정한 우리로서는 敵과 同志의 구별이 어렵다. 越南사태와 크게 다른것은 바로 이점이다. 또한 派兵으로 우리安保에 조그마한것이지마는 구멍이 나지나않을지하는 문제도 우려된다. 越南파병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마는 派兵한국군의 작전, 보급등 제반문제는 어떻게되는지도 명백히해야 할것이다.

실리로 거론되는 레바논戰爭복구는 그렇게 들먹일것이 못되는것 같다. 경쟁력이 있으면 참여의 기회는 찾아오게될것이다.

레바논派兵은 재삼 신중히검토해야 할것이다. 【李梓昇기자】

〈各國 반응〉

日, 정책변화없을듯

【東京=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對外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곳 소련전문가들은 브레즈네프 前주상의 후계자로 체르넨코 정치국원과 안드로포프前KGB의장 그리고 그리신 정치국원을 유력한후보로 들고있으나 그들에의한 트로이카체제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있다.

제일 유력한 후계자로는 브레즈네프서기장을 측근에서 지원, 「브레즈네프의 마피아」로 불렸던 체르넨코의 서기장 계승이 가장 유력시된다고 한소식통은 관측했다.

NHK를 비롯한 민간TV방송들은 이날 하오 5시5분 모스크바방송과 타스통신을 인용, 임시뉴스로 브레즈네프 서기장의 급서를 보도하고 소련의 對[illegible]정책과 對中共화해정책은 계속 추진할것으로 전망했다.

北京 논평없이보도

【北京AP聯=本社】중공관영新華통신은 11일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의 사망을 이례적으로 빨리 보도했다. 新華통신은 이날 모스크바발로 소련의 타스통신을 인용, 브레즈네프가 10일 사망했다고 논평없이 짤막하게 보도했다.

印 아칼리달黨 간디首相유화책불구
亞洲경기 妨害工作

【뉴델리AP聯=本社】인도시크교도의 정치기구인 아칼리 달黨은 10일 편잡州의 자치요구시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시크교도들의 석방을 지시한 인디라·간디수상의 유화책을 무시하고 뉴델리의 아시아경기대회기간중 대대적인 방해공작을 펼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인도의 PTI통신은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해온 아칼리·달黨이 이날 인도·파키스탄접경지대에 위치한 시크교도의 거점인 암리트사르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아칼리·달黨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어떻게 방해할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이 방해공작은 아시아경기대회가 개막되는 오는19일부터 대회가 종료되는 12월4일까지 계속될것으로 알려졌다고 이통신은 전했다.

本社來訪

▲李道先씨(大韓教育保險대표이사겸 사장) ▲李相洙씨(주식회사 教保文庫대표이사) 인사차

政局往來

◆시키는 일이나하는 자세남아있어

全斗煥대통령은 11일 상오 청와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公職者들의 복무자세에 언급, 『아직도 공직자들 가운데는 시키는 일이나 하는 자세가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자들은 主人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더 창의력을 발휘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全대통령은 『그동안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직자들의 친절·봉사정신이 정립돼가고 3大 否定심리추방운동도 괄목할만큼 이뤄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는 과거의 타성과 잔재가 남아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全대통령은 또 旱害대책과 관련, 『각부처별로 揚水機, 호스등 旱害장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리 점검해 가뭄이 닥쳤을때 낭패를 하지않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당부.

◆派兵문제로 또한번 陣痛겪을전망

레바논의 한국군 派兵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政街에서는 한결 같이 신중론을 펴면서도 『實名制, 자원관리법波動이 일단락될만한때에 또 새로운 문제가 터지니 숨쉴틈이 없게 되었다』고 벌써부터 爭點化를 은근히 우려.

民正黨의 한간부는 11일 『派兵문제로 또 한바탕 논란을 벌이게될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그러나 越南파병때 처럼 큰 波動은 없을것』이라고 전망.

그러나 民韓黨의 金珍培대변인은 『자원관리법안과 더불어 이번국회에서 최대의 이슈가 될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 다른 의원은 『이문제는 與野간의 문제뿐아니라 각黨내에서도 贊反양론으로 격동하게 될것』이라고 점치기도.

국민당의 李東鎭총무는 『그동안 야간국회로 많은 밤을 새웠는데 앞으로도 밤잠 편히 자기는 어려울것 같다』고 많은 論難을 예고。

李총무는 『越南파병과는 달리 평화적 성격을 띠고있고 희생이 없을것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부담이나 정치적 實利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신중히 고려해야할것』이라면서 국민당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것』이라고 다짐.

朴東鎭국회외무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레바논은 현재 외교적 정글지대로 종교적 분쟁,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대립, 미국과 소련의 입장, 비동맹국과의 관계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對處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外務委의 許景九의원(民韓)은 『우리의 국제적 지위향상, 경제면의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고 일단 긍정하면서도 『그러나 각宗派간의 분쟁이나 국제분쟁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며 北傀의 역선전도 고려해야할것』이라고조심스런태도。

民韓 "下水道시설 겨우 8%인데 使用料란 語不成說"

◆下水道사용료, 편의행정적發想

下水道法개정안을 상정, 정책질의를 벌인 11일 하오의 국회건설위는 야당의원들이 이 개정안의 부당성을들어 정부에 대해 자진 철회를 종용。

이날 질의에나선鄭圭憲(民韓)·魯目泰(국민)·曺亨高의원(議政)등 野圈의원들은 『下水道시설이 겨우 8%정도가 보급되고있는 현 싯점에서 그 사용료를 거두겠다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시설의무는 외면한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예산절감효과나 노리는 얄팍한 편의 행정적發想』이라고 공격하면서 개정안의 자진철회를 촉구。

한편 李重熙의원(民韓)은 건설부가 서울高德지구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청과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朴準圭환경청장의 豫決委답변사실여부를 묻자 金宗鎬건설장관은 『81년2월20일 高德등 56개宅地조성지역에 관해 환경청에 분명히 상의했다』며 『건설부로서는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朴청장의 답변내용을 부인。

Special Offer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그림·지도및
챠트포함
22권 World Book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한국의 하나뿐인 여성週刊誌!
●단연 部數도 정상, 내용도 頂上!

주간女性

컬러畫報 立體편집

앞서가는 現代女性의 가장 사랑받는 「주간女性」은 나라 안팎의 푸짐한 話題와 함께 세계 패션流行을, 유익한 생활지혜를, 격조높은 教養을 만재하고 있는 본격파 週刊誌입니다.

새 시대를 사는
현대 여성의 다정한 벗!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지방구독자 3불(우송료 포함)〕
구독신청 · 한국일보사
☎ : (416)533-2361

YMCA
X-MAS만찬회

YMCA 에서는 X-MAS를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축하 만찬회를 마련하오니 여러교민의 참석을 바랍니다.

○때 : 12월10일(금)
오후6시30분
○곳 : West End YMCA강당
(531 College st.)
○회비 : 25불 선착순 80명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멧세지—반병섭목사
■게임—박옥선선생
■무용—배미애선생
■특별순서및 소음악회
○후원 : 토론토코리언와이즈맨클럽
○회원권 구입 : Y이사, 와이즈멘,

토론토한인Y이사회
대표 : 전택균, 김순창, 구상회
총무 : 김창열 536-1166

「손큰 福德房」 6명 令狀

서울市警 投機조장 이득…15명은입건

福부인 3명立件 둘手配

"錢主·자금출처 끝까지 추적방침"

서울江南지역의 아파트투기붐조장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1일상습적으로 신축아파트전매를 일삼아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시켜온 서울江南區大峙洞634 韓개발공인중개사 徐忠吉씨(41·서울城東區中谷洞257의16)와 金東喆씨(35·〃聖水洞2街298의3) 등 거물급 복덕방대표6명을 주택건설촉진법·소개영업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울江南區狎鷗亭洞250 巨象부동산대표 崔圭鉉씨(27)등 15개업소 대표15명을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복덕방과 결탁, 6개월이내의 전매금지규정을 어기고 주공아파트를 사들인 閔慈姬씨(32·女·서울江南區大峙洞무지개아파트9동306호) 등 복부인 3명도 입건하고 민간아파트의 전매를 일삼아온 崔기복씨(36) 조정희씨(36·여) 등 2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 복덕방업자들은 거액의 전주(錢主)를 끼고 지난10월부터 10여명씩의 종업원을 고용, 0순위통장 돌려치기·분양아파트매점등을 통해 직접 투기를해 폭리를 취하거나 복부인들을 끌어들여 중간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아파트투기붐을 조장해온 장본인들이라는것.

그러나 큰손 전주수사에서는 연행된 복덕방관계자들이 비밀장부등을 미리 없애버린데다 묵비권을 행사하고있어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경찰은 연행된 부동산업자에 대한 조사와 부동산업계의 정보수집, 전매아파트의 추적조사등을 통해 전주와 자금출처를 끝까지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은 또 입건된 부동산업자들중 상습투기자를 가려내고 이들복덕방업자들이 정보입수등을 위해 관계공무원이나 주공·건설업체 임직원에게 뇌물을 주지않았나보고 이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키로 해 형사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신청된 宇城개발대표 金千洙씨(51)는 영업신고도 없이 종업원 3명을 두고 開浦洞주공아파트446동207호(15평형)를 원분양자 林世榮씨로부터 프리미엄 20만원을 붙여 사들인뒤 다시 2백5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는등 모두 7가구분을 전매했다는 것이다.

또 영진개발대표 朴承旭씨(40)는 지난6월21일부터 8월13일까지 주공 開浦아파트17평형추첨권을金미경씨(여)로부터 5백60만원에 사들이는등 추첨권13장을 4천9백만원의 웃돈을주고 사들였다는 것이다.

복부인 閔慈姬씨는 지난10월14일 開浦 2차주공아파트11평형을 2백90만원의 프리미엄을주고 사들이는등 구속영장이 신청된 88부동산대표 金鍾河씨로부터 2채의 아파트를 전·매입한 혐의다.

또 상습전매행위를해온 혐의로 수배된 崔기복씨는 13평차 아파트등의 분양때 7백여만원의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전매해온 사실이 밝혀져 수사대상이되고있는데 경찰은 崔씨가 상습투기꾼으로 밝혀질 경우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신청자 ▲서울江南區大峙洞624 韓개발 徐忠吉씨·金東喆씨 ▲〃626 宇城개발 金千洙씨 ▲서울江東區可樂洞486고바우부동산 朴貞圭씨(28) ▲서울江南區大峙洞청실상사103호 88부동산 金鍾河씨(27) ▲〃영진개발朴承旭씨(40)

◇입건 ▲서울江南區狎鷗亭洞 한일부동산崔圭福씨(36) ▲〃250巨象부동산 崔圭鉉씨(27) ▲〃開浦洞청화개발金三炊씨(37) ▲〃大峙洞160의2송정종합개발梁沅模씨(32) ▲〃447普成종합개발文熙三씨(42) ▲〃盤浦洞주공3단지쇼핑센터 성진사 李善玉씨(37·여) ▲서울江東區新川洞일신개발 薛永云씨(40) ▲서울東大門區祭基2洞857의171 巨成개발成鍾桂씨(35) ▲서울江南區新沙洞616의1 대정개발林永燮씨(32) ▲서울江南區大峙洞205삼정개발李廷哲씨(33) ▲서울江南區開浦洞홍런사복덕방金台淳씨(30) ▲〃長安사 申玄珏씨(32) ▲서울江南區狎鷗亭洞 漢陽제일교회빌딩2층 大和부동산 金英來씨(34) ▲서울江南區瑞草洞 三湖가든쇼핑센터안 三湖부동산 金元逢씨(43) ▲서울江南區盤浦洞E-25대한부동산 李昌三씨(39)

果川、20여명 連行

京畿道警서도

【安養】경기도경은 11일 형사과소속 형사와 安養경찰서 형사등 30명으로 果川지역투기수사전담반을 편성, 아파트 분양질서를 어지럽혀온 대일종합개발대표 서종열씨(27) 등 거물급 부동산업자와 직원등 20여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소개업자들은 5~6명씩의 직원을 두고전주와 결탁, 10여개씩의 0순위통장돌리기 가수요충동등의 수법으로 최근분양된 아파트에 3백만원~1천여만원의 프리미엄이 붙게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를 혼란시켜왔다는것.

경찰은 또 이들을배후에서 조종하며 거액의자금을동원, 과열투기를 해온 돈줄에대해서도 추적하는한편 복덕방업자와 전주가 부동산관계정보를 빼내 흘려준 관계인사나 아파트건설업자에게 뇌물을 준 여부및 실명투자에게 사기수법으로 전매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펴고있다.

李圭光피고 臨床結審

오늘 서울大病院 병세악화 法廷출두못해

李哲熙·張玲子부부의 거액어음사기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제2형사부(재판장 朴萬浩부장판사)는 신병으로 결심이 연기된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大병원으로 이송된 李圭光피고인(57)에 대한 결심공판을 12일상오10시 李피고인이 입원중인 서울大병원12-1병동 특실 107호에서 임상재판을 열기로했다.

재판부의 이같은결정은 李피고인의 병세가 극도로 악화돼 공판정에 출정할수없기 때문에 입원실에서라도 결심공판을 열어달라는 검찰의요청을받아 들인것이다.

법원조직법 52조는 「공판은 재판정에서 행한다. 다만 법원장은 필요에의해 법원외의 장소에서 개정케 할수있다」고 규정하고있다.

李피고인은 李·張사건과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을선고받고 항소, 항소심 1·2회공판때 신병으로 출정하지 못했으며 3회공판때는 들것에실려 출정은 했으나 신문이 불가능해 15분만에 한마디도 진술하지 못하고 퇴정했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지난1일 4회 결심공판때 李피고인과 역시 신병으로 출정하지못했던 孔德鍾피고인등 2명에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키로하고 결심공판을 연기한채 나머지 피고인30명에 대해서만 결심했었다.

手術결과는 良好

위장염등 신병이악화돼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던 李圭光피고인(57)이 9일하오 직장에 종양증세를 보여 직장종양절개수술을 받았다.

李피고인은 지난 7일상오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등 급박한 혼수상태에 빠져 수감돼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었는데 수술결과는 좋은것으로 알려졌다.

飼料사용 飮料제조 高麗식품2명 執猶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金濫峰부장판사)는 11일 기준치이상의 발부제와 가축용 사료등으로 유산균음료인 高麗야구르트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된 高麗식품대표 南成煥씨(47)와 생산부장 李根成씨(32)에게 보건범죄 단속법위반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고 두사람에게 벌금6억5천만원을 병과했다.

대규모密屠殺團 「道峰파」검거

韓牛 2백40頭…8천만원 부당이득

8명구속 2명立件 3명手配

서울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11일 한우 2백40마리(구입가 3억6천여만원)에 콤프레서를 사용, 강제로 물을먹여 밀도살한후 무신고식육판매업자들에게 팔아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본 「道峰파」 밀도살조직을찾아 자금책 河俊昊씨(47·가축매매업·서울城北區三仙洞1의05의2)와 도살책 權重福씨(50·양돈업·서울道峰區下溪洞350) 등 8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판매책 朴海龍씨(30·식육중간상·서울城東區 馬場洞481의48)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운반책 李성재씨(35·운전사·서울東大門區面牧7洞353의7) 등 3명을 전국에 수배하는한편 이들이 소에게 물을먹이는데 사용한 콤프레서1대와 해머·칼등 밀도살기구를 압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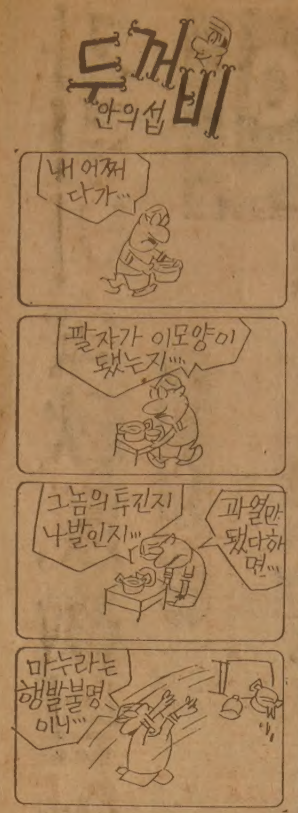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지난 2월중순께부터 인적이 드문 서울道峰區上溪1洞과 下溪洞체소밭에 15평가량의 가건물2채를 세워놓고 밤중에 주로 한우에물을먹여 체중을 늘린후 밀도살, 머리·가죽·발·갈비·등심·염치등 10개부분으로 해체해 馬場洞에 있는 무신고식육업자들에게 팔아왔다.

검찰은 도축장에서 정식으로 도축할려면 4만5천원의 도축료외에도 가죽(4만원)과 머리(5만원)를 내놓아야하는데 밀도살을하면 소1마리당 13만5천원의 경비를 절감할수있으며 물을 먹이면 1마리당 20~30㎏의 체중이 늘어 이를 밀도살조직은 1마리당 33만5천원의 부당이득을봐 모두 8천4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쇠고기를사들인 무허가식육판매업자들은 다시 시중정육점이나 대형음식점등에 팔아왔는데 정육점이나 음식점에서는 한우가 비육우보다 맛이좋은데다 물을 먹이면 고기가 연해지기때문에 물먹인 밀도살고기를 사들여 왔다는것이다.

◇구속▲河俊昊 ▲李興權(36·양돈업·자금책·서울道峰區上溪1洞1083)▲金學鎭(35·가축매매업·〃·서울東大門區興農洞676의2)▲權重福▲金東吉(29·노동·도살책·서울江東區梧琴洞)▲金東煥(37·식육점·판매책·서울東大門區長安洞241의8)▲金永桓(36·식육중간상·판매책·서울城東區馬場洞537)▲尹德重(42·운전사·운반책·서울道峰區孔陵1洞517의66)

◇불구속▲李성재▲金之煥(28·노동·도살책)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초중고 越班制 검토

문교부、과학英才육성방안 마련

문교부는 11일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위해 초·중·고의 월반제실시를 검토하는것을 골자로한 과학기술교육진흥방안을 마련, 전국 시·도교위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진흥방안에서 ▲각 시·도교위안에 과학교육만을 전담하는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공업고등학교에 기능직공무원으로 실습조교를 별도 채용하며 ▲공고생 5천명을 대상으로 연간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술검정제도를 개선, 기술자와 기능공사이에 기술공제도를 만들어 공고 졸업생들에게 부여토록 했다.

문교부는 또 이같은 진흥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각급학교와 기관이자체계획을 만들고 이의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했으며 실적이 좋지 않을경우 책임자를 엄중문책키로 했다.

◇한파 豫告하는 强風 닥쳐올 한파를 예고하는 강풍 [illegible]아쳐 서울곳곳의 가로수들이 부러져나가 행인들의 마음을 스산하게 만들었다。그러나 童心은 즐겁기만하다。【11일 서울延禧洞에서】

〃椒井약수 天然음료아니다〃

保社部、과대선전是正명령

보사부는 11일 화학탄산가스를 가미해서만든 청량음료「椒井약수」를 천연음료인것처럼 선전한 椒井약수에 대해 과대광고시정명령을 내렸다.

보사부의 이번조치는 주식회사 椒井약수에서 「천연사이다·천연탄산수」란 이름으로 허가받아 생산판매하는 청량음료는 화학탄산가스를 가미해서 만든 음료수임에도 각종광고를 통해 「공해없는 천연음료, 색소없는 보건음료」등의 선전을하고있어 취해진것.

보사부식품관계자는 『자연생수의국내시판은 법으로 금지돼있는데도 椒井약수측이 순천연가스로 빚어낸 천연음료인것처럼 과대광고를해 시정지시를내렸다』면서 『즉각 시정하지않을경우 생산중지등 행정조치를 내릴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大 총학생장등 4명 지도休學

서울大는 11일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金相俊군(23·사회학과3년) 부학생장 宋泰洙군(23·계산통계학과3년) 문예부장 李浩培군(24·정치학과4년) 총무부장 李建俊군(24·전기공학과4년)등 호국단간부4명을 지도휴학조치했다.

이들은 지난 3일하오2시20분께 서울大冠岳캠퍼스 약대입구계단에서 「학생의날에 즈음하여」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낭독하고 학생총회를열려다 경찰에 연행됐었다.

이들간부들의 임기는 내년 2월28일까지이다.

漁船21척 未歸還

풍랑에 1척침몰

【地方綜合】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진가운데 11일상오 釜山·濟州·木浦·麗水·浦項등 전국 각해안에는 초속15~20m의 강풍과 함께 3~6m의 높은파도가 일어 6천여척의 각종선박이 항포구에 대피하고있다.

또 이번풍랑으로 全南麗水인근 해역에서는 소형어선1척이 침몰, 선원 2명이 실종됐고 독도근해쪽으로 선원5백여명을 태우고 오징어잡이를 나간 어선21척이 이날상오12시현재 돌아오지않고 있으며 釜山影島에서는 바다구경을 나갔던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기도했다.

貨物船이 전복 船長등 둘실종

【麗水】10일하오7시 전남 麗川郡華井面蓋島里 모전마을앞 70m해상에서 2·5톤급 소형화물선 영일호(선장 金相連·39)가 파도에 휩쓸려 전복, 曺永圭씨(21·麗川郡華井面蓋島里)와 같은마을 鄭良禮씨(41·여) 등 2명이 실종되고 선장 金씨와 다른 승객 4명은 헤엄쳐 나와 살아났다.

在日동포등 넷連行

매장文化財사건

【大邱】속보=거액문화재발굴기도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中部경찰서는 11일 재일교포 金順平씨(63·日本名古屋市在)와 金씨의 4촌동생 金在雲씨(60·서울東大門區中和2洞322)관상업자 朴忠光씨(45·서울恩平區葛峴洞321)金益煥씨(38·大邱市南區大明7洞1733)등 4명을 연행조사중이다.

巨濟앞바다서

대한해협 횡단탐험 해모수號 표류救助

【釜山】속보=1톤짜리뗏목을 타고 한일간의 고대항로를 따라 대한해협횡단탐험길에 나섰던 해모수호가 출발33시간30분만인 10일하오5시께 경남巨濟郡흥제도 동방7마일해상에서 14시간동안 표류하다 극적으로 구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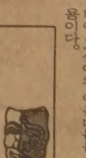
「童話」어머니

옛날애기 가장잘하는 주부 柳仁先씨

"영악한 아이들로 만들어서야"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렸을때 베갯머리에서 할머니로부터 구수한옛날이야기를 들은 아련한 추억을 지니고 있다. 그럼 요즘은 사회생활이 바쁜데다, 영악해진 아이들이TV에 정신을 쏟고있어 「구수한 낭만」의 시간을 갖기가 힘들어 졌다.

주부柳仁先씨(36·사진·城南市丹垈1洞660의74)는 어렸을때의 기억을 되살려 매일밤 아들 재현(9)과 딸 현진(7)에게 전해준다. 요즘 한창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사자와 왕자」. 동화에 빗대어 모성애의 아름다움을 그린 내용이다.



柳씨는 매일밤 9시에서 9시30분까지 아이들에게 꿈이 실린 동화를 들려준다. 柳씨가 빨래라도 하는 때는 남편 鄭炳昌씨가 대신한다.

동화의 내용은 주로 동화책이나 [illegible]에서 읽은 것. 때로는 이웃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꾸미기도 한다.

아이들과 매일밤 정겨운 시간을 [illegible] 이젠 스스로가 동화속의 주인공처럼 돼버렸다. 이야기 한마디한마디에 감정이 섞여지게 됐다. 柳씨는 이같은 이야기솜씨를 최근 색동회가 마련한 제7회 전국어머니동화구연대회에서 유감없이 발휘, 「가장 동화를 잘 들려주는 어머니」로 선정돼 특상을 받았다.

「동화를 들려주면 자녀가 슬기로와지고 부모의 사랑을 잘 느끼고 표현력이 생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되고 친절해지고…」柳씨의 동화예찬론은 끝이 없다.

柳씨가 자녀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기 시작한 것은 결혼때 받은 책의 영향이다. 「엄마되기는 쉬워도 엄마노릇하기는 어렵다」는 귀절을 책에서 읽고 아들 재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전에 동화를 들려주곤 했다.

『목소리가 거칠고 누구나 알고 있는 동화라도 엄마목소리로 들려주면 아이들은 더 할수없이 좋아한답니다』

柳씨는 요즘 동화구연솜씨를 방안만이아니라 곳곳에서도 발휘하고 있다. 50만원을들여 천막·신발장을 마련, 골목유치원을 차렸다.

『좋은 추억은 좋은 꿈만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영어단어만외고있어 가지고 되겠읍니까』 【徐華淑기자】

CENTRAL CANADA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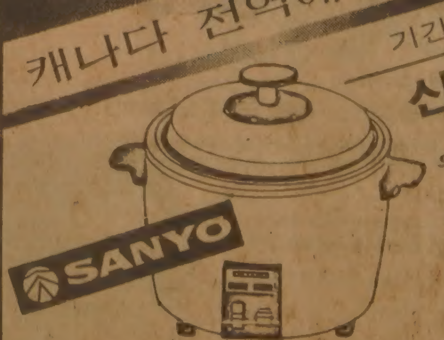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할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할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산요 자동·보온밥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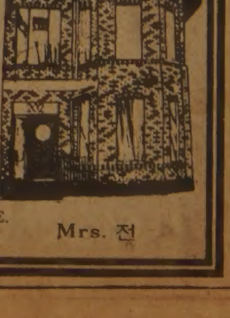


왜 산요(Sanyo)를 사느냐구요?
● 산요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의 밥솥 부분을 차지합니다.
● 가격이 항상 저렴합니다.
● 결코 타는법이 없으며 자동조절이 됩니다.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켙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켙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E MONTREAL
● ASIAN FOODS-VANCOUVER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의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의 각종 털코-트, 쟈켙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忠南, 고향 大田에 1位골인

李善熙 小區間 신기록등 힘입어

가랑비속 秋風嶺넘어…京畿선두유지

28회 京釜大驛傳경주 (4일째)

【大田=대역전취재반】 중반을 넘어선 제28회 부산—서울간 대역전경주대회 제4구간(金泉—大田간 94.3㎞)에서 충남이 분투, 향토 大田에 선두로 골인했으며 종합기록서는 경기가 전날에 이어 수위를 지켰다.

11일 鐵極燮 金泉시장의 출발신호로 치닫기시작한 건각들은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추풍령고개를 넘어 열띤 각축전을 벌였다. 충남은 이날 제5소구에서 李善熙가 종전기록을 41초단축하는 소구간 신기록을 세우고 주전들의 파이팅으로 金泉—大田 제4구간 94.3㎞코스에서 4시간52분43초를 마크,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구간수위에 올랐다.

그러나 충남은 釜山—大田간(315.1㎞) 종합기록서는 京畿·서울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전날 종합기록에서 서울을 따돌리고 선두에나선 경기는 尹忠求 俞貞濡이 제2·5소구에서 신기록을 세운데 힘입어 4시간53분22초로 大田에 2위로 골인했으며 종합기록서는 16시간12분16초로 수위를 지켰다.

서울은 경기를 따라잡기위해 필사적인 추격을 벌였으나 주전들의 부진으로 충남·경기에 이어 4시간55분25초로 3위에 그쳤다. 종합기록서는 16시간14분50초로 경기에 2분34초뒤져 2위에 머물렀다.

전날 제3구간에서 수위에 나섰던 경남은 趙在龍이 제1소구에서 선두를 지켰으나 후속주자들의 부진으로 5시간5분53초로 다시 4위로 처졌다.

충남은 제5소구에서 李善熙가 구간신기록을세워 俞貞濡(경기)을 제치고 선두에 나섰으며 徐炳大 朴英培 李書善 俞炳觀등 후속주자들이 필사적인 역주를보여 大田에 선착했다.

이날 레이스는 金泉을 출발하면서 가랑비가 내리는데다 앞바람이 불어 선수들을 괴롭혔다.

추풍령을 넘어서자 빗방울이 굵어졌으며 永同에서는 한때 햇살이 비쳤으나 제5소구 楊江橋를 지나면서 다시 비가 뿌리기 시작, 골인지점인 大田서는 세찬 비가 쏟아져 건각들의 기록경신에 큰 장애가 됐다.

◇제1소구 金泉—新岩 코스에서 4개팀 주자들이 엉켜 역주하고있다。【대역전취재반】

忠南, 大田1位골인 주역 李善熙

"體力보강 마라톤新記錄내겠다"

충남이 제고장 大田에 1위로 골인할수 있었던것은 李善熙(23·조폐공사)의 역주 때문. 春川農高 2년때부터 중·장거리를 시작한 李는 仁川에서 열렸던 제59회 전국체전 1천5백m에서 3위에 입상,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봄 서울국제 마라톤에 처음 출전해 2시간20분4초로 13위에 올랐던 李는 『오늘 비가 많이 와 지장이 있었으나 신기록을 내기위해 있는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1m73, 56㎏의 마른체격. 지난9월제대한 李는 『체력이 좀 약하기때문에 이번 겨울에 체력보강훈련을해서 한국마라톤 최고기록을 내는것이 소망』이라고 말했다.

李는 원래 鳥山高에서 육상을 했으나 자질을 인정받아 春川農高에 스카웃됐다. 고교를 졸업하고 조폐공사에 들어간후 李경환코치의 지도로 본격적인 마라톤을 시작,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으나 지난9월 말레이지아에서 열린 페낭국제마라톤에 육군대표선수로 활약하다 최근 좋은 기록을 내고있다. 2위에 오르는등

오늘이 아버지 李相德씨(59)의 생일이어서 구간 신기록을 냈는데 바로 경사가 겹쳤다. 【대역전취재반】

<제4일 기록> (釜山—大田 315·1㎞)

①경	기	16시간12분16초
②서	울	16시간14분50초
③충	남	16시간15분02초
④경	남	17시간19분24초

<제4區間 기록> (金泉—大田 94·3㎞)

①충	남	4시간52분43초
②경	기	4시간53분22초
③서	울	4시간55분25초
④경	남	5시간05분53초

<小區間別 기록> (★표는신기록)

▲제1소구 (金泉—新岩12·1㎞)

①趙在龍	(경남)	36분51초
②金長日	(경기)	37분17초
③蔡鴻洛	(서울)	37분54초
④金鶴洙	(충남)	38분25초

제2소구 (新岩—秋風嶺6·1㎞)

☆①尹忠求	(경기)	18분55초
②尹濟基	(충남)	19분16초
③李相燮	(서울)	20분15초
④金濟洋	(경남)	20분43초

※종전=田英鎬(경기) 19분10초

◇제3소구 (秋風嶺—黃澗 9·5㎞)

①柳在聖	(경남)	27분53초
②尹得燮	(충남)	28분35초
③宋俊圭	(경기)	28분48초
④李泰根	(서울)	29분19초

◇제4소구 (黃澗—永同15·5㎞)

①金周龍	(서울)	49분09초
②裵銀煥	(충남)	49분44초
③李承鎭	(경기)	50분41초
④朴治鉉	(경남)	54분05초

◇제5소구 (永同—楊江橋10·1㎞)

★①李善熙	(충남)	29분39초
★②俞貞濡	(경기)	30분17초
③吳在道	(서울)	30분46초
④河正鎭	(경남)	32분01초

※종전=심현택(서울) 30분20초

◇제6소구 (楊江橋—伊院11·5㎞)

①鄭晩和	(서울)	35분10초
②徐炳大	(충남)	35분30초
③元鍾赫	(경기)	36분10초
④金鍾道	(경남)	39분39초

◇제7소구 (伊院—沃川10·7㎞)

①殷焌鉉	(서울)	33분03초
②鄭渭錫	(경남)	33분23초
③朴英培	(충남)	33분25초
④崔昌鎬	(경기)	33분33초

◇제8소구 (沃川—細川11·1㎞)

①黃寅哲	(경기)	33분45초
②柳文鍾	(서울)	34분05초
③李書善	(충남)	34분37초
④金南石	(경남)	37분17초

◇제9소구 (細川—大田 7·8㎞)

①俞炳觀	(충남)	23분32초
②林相圭	(경기)	23분56초
③咸洪根	(경남)	23분58초
④鄭起元	(서울)	25분44초

◇각팀 기록차

①~②	2분34초
②~③	12초
③~④	1시간4분22초

협찬: 국제상사(株)

◇태극기를 뉴델리 하늘에 장도에 오른 한국선수단。方烈기수를 선두로 金浦공항 로비를 통과하고있다。

아시안게임選手團 4百6명 어제 壯途에

"힘껏싸워 國威떨치겠다"

印度뉴델리 제9회 아시안게임(19~12월4일)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 4백6명이 11일상오9시 KAL 전세기편으로 장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3위를 노리는 한국선수단은 이날 李源京체육부장관, 鄭周永대한체육회장등 체육계인사와 1천여 가족친지들의 환송을 받으며 트랩에 올랐다.

단기인 태극기는 안세우고 金鍾烈선수단장, 金聖集총감독의 순으로 트랩에 오른 선수단은 『선전분투, 국위를 선양하고 귀국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승마를 제외한 20개 종목에 출전한다.

한국선수단은 방콕을 경유, 하오8시(한국시간) 뉴델리 국제공항에 도착, 선수촌에 입촌한다.

亞洲大會 철저방해 印시크敎 공식발표

【뉴델리AP=聯】 印度시크교도의 정치기구인 아칼리·달黨은 10일 펀잡州의 자치요구시위와 관련하여 체포된 시크교도들을 석방토록 지시한 인디라·간디수상의 유화책을 무시하고 뉴델리의 아시아경기대회기간중 대대적인 방해공작을 펼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印度의 PTI통신은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해온 아칼리·달黨이 이날 印度 파키스탄접경지대에 위치한 시크교도의 이른바 거점인 암리트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식축구 내일개막

제2회 전국대학 아메리칸풋볼선수권대회가 7개팀이 참가한가운데 13일부터 서울오류동 럭비전용구장에서 열린다.

16일까지 계속될 이번대회는 2개조로 나뉘어 예선리그를 펼친뒤 조1위팀끼리 결승전을, 조2위끼리 3·4위전을 갖게된다.

韓化 全美愛등 맹활약

여자實業농구 동점13번끝에 朝銀에 역전승

제20회 추계전국여자실업농구연맹전이 11일 문화체육관에서 12개 실업팀이 출전한 가운데 개막됐다.

오는20일까지 펼쳐지는 연맹전 첫날예선리그서 韓國化粧品과 太平洋化學이 각각 朝興銀行과 信用保證基金등 금융단팀을 물리치고 첫 승리를 올렸다.

국가대표들이 모두 빠지가운데 열린 경기에서 A조의 韓國化粧品은 前대표선수 全美愛·柳向玉·李珠英의 활약으로 朝興銀行을 60—57로 제압했다.

朝興銀行서는 許英玉과 成貞愛가 분전했으나 동점13번의 어려운 고비에 무너졌다.

◇제1일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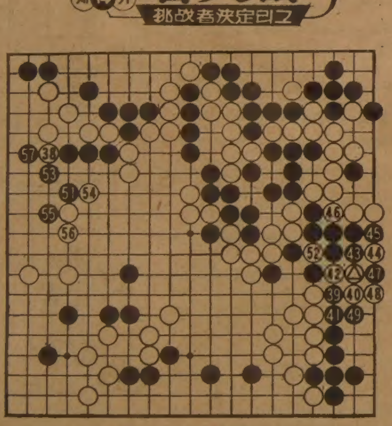
▲A조 한국화장품 60 (24 36 / 23 34) 57 조흥은행

▲B조 태평양화학 65 (33 32 / 30 26) 56 신용보증기금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3局 第8譜 138~157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李相澈
黑(7段) 河燦錫



黑、다시금 優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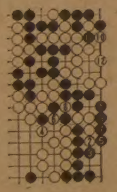
좌상축일대의 전투는 白38까지 일단 결말이 났으나 우변에 투입한 △표가 과연 어떤변화를 가져오느냐가 숙제로 남아있었다.

黑白간 복잡한 삼전을 잠시 보류했던곳인데 黑은 39이하가 바로 노림수였다. 白으로서는 먼저 40에 민다음 42로 끊은것이 최선의 응수.

여기서 黑은 어려운고비에 봉착했다. 白42에 대하여 참고도처럼 黑1이면 이하 9까지 일부가 살아간다. 그러나 이것은 白10, 12의 패가 뻔한데 이패는 만만치가 않다. 더구나 제1선을 건너가는 것도 억울한데다 패를 지면 전체형세도 자신이 없다. 이리하여 결국 실전처럼 黑43으로 강하게 돌진하여 이자체로 결판을 지으려 했던것이다.

白도 물론 필사적이다. 12분간 수를 확인하고 44이하 48. 黑이 원하는대로 이곳에서 패가 났다.

그러나 黑51의 패감에 응할도리가 없어서 52로 해소하고 대신 좌상흑을 黑57까지 바꿔쳐서 다시금 黑이 우세한 국면으로 변하고 말았다. 50…44 【一凡】



미식축구지침서國內첫발간

미식축구의 역사·경기방법·용어등을 자세히 설명한 미식축구지침서(인류 최고의 스포츠 미식축구)가 국내서 처음 발간됐다.

이 저서를 펴낸 金相曄씨(한국 아메리칸 풋볼협회이사)는 高麗大 재학시 쿼터백으로 활약한 경기인으로 미식축구의 보급을 위해 풋볼의 경신과 역사·장비·경기방법·용어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경기규칙을 실었다. 전원출판사 발행, 2백17페이지, 값 3천5백원.

안개속의 집 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65>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유기사가 찌푸린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문질렀다.

수지는 구역질이 날것처럼 속이 불쾌했다. 유기사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두껍고 견고한 귀부인의 탈 저 밑바닥에서 욕망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꿈틀대는 징그러운 벌레때문이었다.

『우리 집 사람은 좋은 사람 입니다. 고생만 시켰읍죠. 우린 가난하지만 참재미있게 살수도 있었는데… 제가 죽일 놈이죠』

유기사는 혼자서 두서없이 중얼대다가 죽일놈 소리만을 깜짝 놀라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아내의 소원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수지는 돌아서서 이마를 짚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섭섭지않을 정도의 돈을 꺼내 봉투에 넣어 유기사앞으로 밀어놓았다.

『이게 뭡니까?』

『얼마 안되는 거지만 내가 생각해서 조금 더 드리는 거예요』

유기사의 얼굴이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왜 그래요? 이미 청부맡긴 일이지만 일이 잘 되고 기술자가 마음에 들었을때 주인이 약간의 사례를 더 생각할수도 있는 문제 아녜요. 되려 안주면 섭섭해 하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하던데 유기사는 참 이상하네』

『그게 아니라요, 제 부탁을 이돈봉투로 때우시려는 것같아서…』

『대신 이거나 먹고 떨어지랄까봐 겁이 난다 이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뭐나 지랄증 같은 못된 증이 있어가지고 섬나 문에 어느날 별안간 처자식이고 일자리고 다 집어던지고 한바탕 미쳐 돌아가다가 재 정신이 든 적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럴때마다 사장님을 찾아가서 나도 새 사람이 돼볼테니 자립할수 있게 큰 마음 먹고 한번 사업자금을 대달라고 거액을 요구하곤 했죠. 실상 가당치도 않은 얘기건만 우리 사장님은 묵묵히 다 들으시곤 지금의 사모님처럼 참 안 됐다는 얼굴로 돈 봉투를 꺼내 주시면서 이걸로 우선 집에 연탄하고 쌀이나 몇말 들여놓고 내일부터 가게로 출근하도록 해, 이러셨죠. 크게 봐주신거지만 저로선 크게 속아넘어간 기분이 들곤 했죠. 제 정신이 들때마다 모든 사람이 내 새생활을 어김없이 지원해줄것같은 허황한 희망에 부풀었었으니까요. 결국 제 정신이 돌아올때마다 번번이 죽은 사람이 살아온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기뻐해준건 아내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지금 아프답니다. 조그맣고 허약한 여자가 아이를 다섯씩이나 낳았으니까요. 마지막 사내놈을 낳을 때 아내는 거의 목숨을 걸었죠. 저의 아들 욕심을 저도 어쩔수가 없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사모님, 사모님은 지금 제가 아내한테 속죄할수있는 방법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유기사의 작은 눈에 눈물이 하나 가득 괴었다. 수지는 그의 큰몸집을 당장 무릎꿇릴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지의 내부에서 더듬이를 휘젓고있던 저급한 호기심이 그녀보다 훨씬 민감하게 망설임을 가지고 있었다. 재빨리 무안을 타고 위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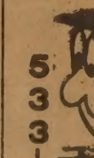
『그렇게까지 중동에 가고 싶나요?』

『네, 집사람의 소원이니까요』

『우선 그거나 넣어둬요. 중동얘기하고 바꾸자고 주는게 아니니까』

『그럼 주인어른께 제 얘기를 꼭 해주시는 거죠?』

주간女性 구독신청 533-2361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식 당

아리랑식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구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리아하우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국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울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홍콩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757-6334 Mr.최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밭식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울식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양 장 점

샘터의 상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운전 개인지도, 서쪽 끝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 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건학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광고문의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섬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도넛숍에서 일할 여자분, 주중과 주말.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4-9325

〈오토바디숍 헬퍼 구함〉
-자동차 일에 취미 가진 남자.
-주 40시간(년봉: 1만~1만2천불)
-학교에 보내 라이센스 받을 때까지 트레이닝 코스를 밟게 함.
전화 : 533-8507, 8508 Mr. 람

밀크스토아 메니저 구함.(오타와 지역)
약간의 보증금.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624-5817(토론토)

도너스 가게서 일할 파트타임 여학생 구함.
다운타운 소재.
전화 : 222-3877

씨알학교에서 서쪽버스를 운전할 분과 태권도 선생님을 급히 찾읍니다. 겸하시면 더욱 환영합니다.
전화 : 960 -0074

그로서리 스토아 캐쉬어 구함.
남·녀 불문. 파트타임.
전화 : 691-3666

일요일만 일할 여자 캐쉬어 구함
12시~8시까지
전화 : 921-0624

입주하셔서 두 아기 봐주실분 구함.
(5살, 1살)
전화 : 447-1460

5년 경력있는 Auto body man구함.
좋은 보수와 좋은 컴미숀, 좋은 주위환경
깨끗하고 좋은 Shop.
35 Primrose Ave. Tor.
전화 : 533-8507 Mr. Lam(람)

버라이어티 스토아 메니저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 783-0134

스카브로지역 가게에서 일할
Cashier 또는 Helper 필요하신분
(17세, 19세 여학생임) 전화 : 291-4547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 동반자 구함. ★본인은 컴퓨터 전문가, 신사, 캐나다 시민권자, Scandinavia 태생, 독신자, 참되고, 교육받고, 유머가 있으며, 세련되고 진실된 한국여성을 만나고 싶읍니다. 25세-34세정도, 친구나 결혼할 용의가 있으신 분, 영어로 문의바람. BOX 833, Station K. Tor. Ont. M4P 2H2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박수웅)	224-1622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힌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매 매

그로서리 가게와 빌딩 매매
토론토서 20마일 북쪽. 아스킹: $155,000+스탁
물게지 가능. 전화 : 1-939-2341 Mr. 조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재봉틀 Simpson's 나무책상포함 ◉$195.00
Good-Condition.
전화: 767-1702 김(오후6시 이후)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몬트리얼 지역
주매상: $12,000 렌트: $750 아스킹: $120,000+스탁
전화 : (514)366-8393 Mr. Plante

잘 꾸며진 레스토랑 매매. Yonge & St.Clair
200좌석. 좋은 리스. 빌딩과 붙었음.
전화 : 924-1435 Jim or Louis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도넛숍 매매.
서쪽끝에 빠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주매상: $3,500이상 보장. 리스: 13년. 아스킹: $119,000
주인은 레바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팔아야함.
도나스 만드는 것은 주인이 추레인 시킴.
전화: 596-8170(B), 447-4585(R) Andrew Lee.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Lawrence & Allen Express)
Plaza 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759-8658(R), 781-6774(B)

빌딩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116 Dawes Rd.(Victoria Pk)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우체국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이상. 아스킹: $15,000+스탁. ★우체국이 있으므로 이민자나 시민권자에 한함. ◉전화: 691-5297 Mr. Gilbert.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전화 : 653-6336, 598-4327

비데오 아케이드 매매
아스킹: $20,000 리스: 4년+3년
전화 : 691-8337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살림집 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많은 권리금 기대하지 않음.
-G.M.회사에서 가까운 바쁜 거리.
230 ONTARIO ST.(전화: 1-685-5863)

● Smoke & Gift shop
주6일 open 주매상 6,500~7,000
리스 1990년 렌트 1,100(2층아파트 포함)
● Coffee & Snack shop Shopping mall내
6일(open)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Option.
● 드라이 크리닝 다운타운 고급주택가에 위치함.
주매상 3,000불 렌트 1,000불 리스 9년
● 도낫스 주 9,000불 리스 15년
A.E. LE PAGE Real Estate 전화: 741-9170 Mrs. 우.

2 Door 팝 쿨러 팝니다.
Good Condition 가격 : $350.-
전화 : 245-0711

스토어 매매, 이층에 살림집 있음.
주매상: $3,500이상. Video머신, 로타리오 머신에서
월 1,000불이상 수입. 전화 : 1-383-8232(Hamilton)

가게렌트 또는 빌딩 팝니다.
Dawes Rd. & Victoria Pk. Ave.
전화: 461-5386 저녁7시~10시.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셋방(1층 Flat)-1Bedroom Apt. 다운타운지역
차고·세탁기·히팅등 포함 월 $430
독신자 또는 부부. Christie×Dupont(532-9581)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콘도미니움 For Rent or Sale(3 Bed Rm.)
12월1일부터 입주가능. Victoria Pk. & Danforth(써브웨이 건너편)
◉렌트: 월$700(관리비 포함) ◉Sale: $64,000. 전화: 694-4812

3층 건물 렌트합니다.
Bathurst & Queen
음식 장만하게 만들어 졌음.
부엌, 대형 냉동기, 냉장기, 스토브, 씽크.
3층은 살림할수 있게 되어있음.
전화 : 364-1629(오전 9시-오후 5시)

집 매 매

4 Bed Rm.(Double Garage)
몰개지 : 11¾%.
장소: Morning side & Lawrence Ave. E.
(Mall 근처)
가격: $108,900
전화: 497-7272(B)·281-0672(R) Melwood.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케네디 꽃집
○각종 Arrangement, ○Plant, 화환,
○주문배달, ○꽃도산매.
2196, 2252-4 Bloor St. W.
전화: 762-1572, 762-9854 김웅일.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과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제5회 카나다 태권도대회

이번 대회를 위해
전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실업인협회 회원 여러분께
우선 지상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한인태권도협회 주최로 범교민적인 체육행사로서 태권도대회를 갖고저 하오니 교민들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Sat. November 20, 1982

York University Gymnasium
Tait McKenzie Building·
4700 Keele Street, Toronto

예선전 : 12 : 00a. m.
결승전 : 7 : 00p. m.

티켙 : 성 인 $5.
어린이 $3. (12세 이하)

—연락처—

정기태 922—5117　박종수 961—7100　손명수 763—1155　한만수 244—5824
정영수 652—0000　박주삼 535—4000　서정길 630—3095

주최 : 카나다한인태권도협회

후원 :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